Person 2020 경기창작센터 항작레지던시 기획전 2020 Gyeonggi Creation Center Special Exhibition Perspective

전시 영상 Exhibition Video

0인칭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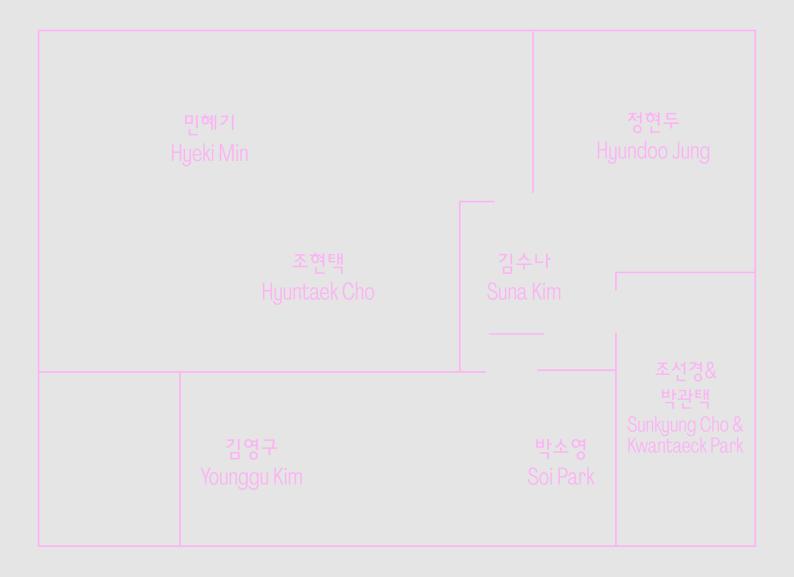
Contents

서문4	Preface6
정현두 16	Hyundoo Jung 16
박지형18	Jihyung Park······ 18
	Anbuh20
안부20	Suna Kim23
김수나23	Seungyeon Park 25
박승연25	Ki-Young Peik····· 27
백기영27	Hyeki Min29
, ,	Sue Kim 31
민혜기29	Areum Woo 34
김수정 31	Hyuntaek Cho ······ 36
우아름 ••••• 34	Byoungsoo Kim ······39
조현택36	Joowon Park ····· 41
김병수······39	Soi Park 43
	Juyeon Lee 45
박주원 •••••• 41	Jaewon Chey 47
박소영43	Younggu Kim ······50
이주연45	Chunghwan Kho ····· 52
최재원47	Sung-Ho Kim 54
김영구50	Sunkyung Cho & Kwantaeck Park ••••• 57
	Youngshin Kim60
고충환······ 52	Myeongjin Heo ······ 62
김성호54	Minji Kang······ 64
조선경 & 박관택 ••••• 57	Sewon Oh ······ 66
김영신60	Artist's Biography ·····68
허명진62	
강민지64	
오세원66	
작가 약력68	

목차의 항목을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Click the item in the contents to move to the relevant page.

0인칭시점



0—Person Perspective

2020 경기창작센터 창작레지던시 기획전 《0인칭 시점》

경기창작센터에서는 2020년 창작레지던시 입주작가 8명의 신작을 선보이는 기획전 《0인칭 시점》을 개최한다. 올해 팬데믹 시기를 지나며 접촉이 발생하는 물리적 공간은 물론, 사회적 구조, 종교적 믿음 등 사회를 지지하고 있는 기반들은 의심과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바이러스가 촉발한 불안과 긴장의 현실을 잠시 망각하고자 우리는 온라인 플랫폼을 배회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공간의 의미는 더욱 각별히 다가온다.

이번 입주작가들의 작품은 현재를 경험하는 다른 차원의 공간적 제안이 가능할 것임을 시사한다. 온오프라인의 구분을 넘어 무엇인가 존재하고 있는 곳을 공간이라고 볼 때, 작품들은 감상자의 의식이 자리하게 되는 비특정 공간을 만들어낸다. 이를테면 검은 흔적이나 음파의 공명으로 의식의 심연을 더듬는 공간, 종교나 이방인, 도시의 도상을 통해 드러나는 사회적 영역으로서의 공간, 회화적 세계를 담은 평면의 공간, 사물의 언어와 신체의 개입으로 가변하는 공간 등 작가들의 입주기간 다양한 실험들에서 고정된 틀을 넘어서는 공간적 면모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인칭 시점"은 하나의 중심적인 시야 바깥의 가능성, 또 그것이 자아낼 새로운 차원의 공간성을 담은 제목이다. 이 전시는 코로나19사태가 재확산됨에 따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공개 형식으로 전환되었다. 영상으로 선보이게 될 전시 작품들에서 다시 새로이 작동할 시점 0인칭의 가능성을 기대해 본다.

> 방초아 경기창작센터 학예연구사

2020 Gyeonggi Creation Center Special Exhibition *O-Person Perspec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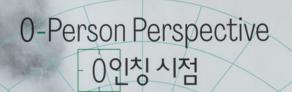
The Gyeonggi Creation Center (GCC) is holding a special exhibition titled *O-Person Perspective*, which showcases new artworks by 8 artists in the 2020 Creative Residency Program. As society goes through the era of pandemic, the foundations supporting society are becoming targets of suspicion. Aside from physical spaces where contact occurs, social structures and even religious beliefs are also targets of suspicion. People roam online platforms to escape the reality of anxiety and tension caused by the virus. In such reality, the meaning of space has become even more special.

The artworks created by the resident artists suggest that it is possible to propose a different dimension of space where we can experience the present. If we define space as a place where something exists beyond the division of online and offline, the artworks create a non-specific space where the consciousness of the viewer is located. Viewers discover spatial aspects beyond the fixed frame in various experiments conducted during the artists' residency, including a space that traces the abyss of consciousness with a black trace or the resonance of sound waves, a space as a social domain exposed through depictions of religions, outsiders, and a city, a flat surface of a pictorial world, and a space that changes through the intervention of body and the language of objects. The

title "O-Person Perspective" implies a possibility outside the central perspective and of spacial quality in new dimension that it will bring about.

This exhibition has converted from offline to online view as COVID-19 re-proliferated. We look forward to the possibility of a new standpoint when it will work in diverse way through the artworks that will be presented as videos.

Choah Bang Curator of Gyeonggi Creation Center



2020 경기창작센터 창작레지던시 기획전 2020 Gyeonggi Creation Center Special Exhibition

> ₹11 € 2-2-5-8 m omnos in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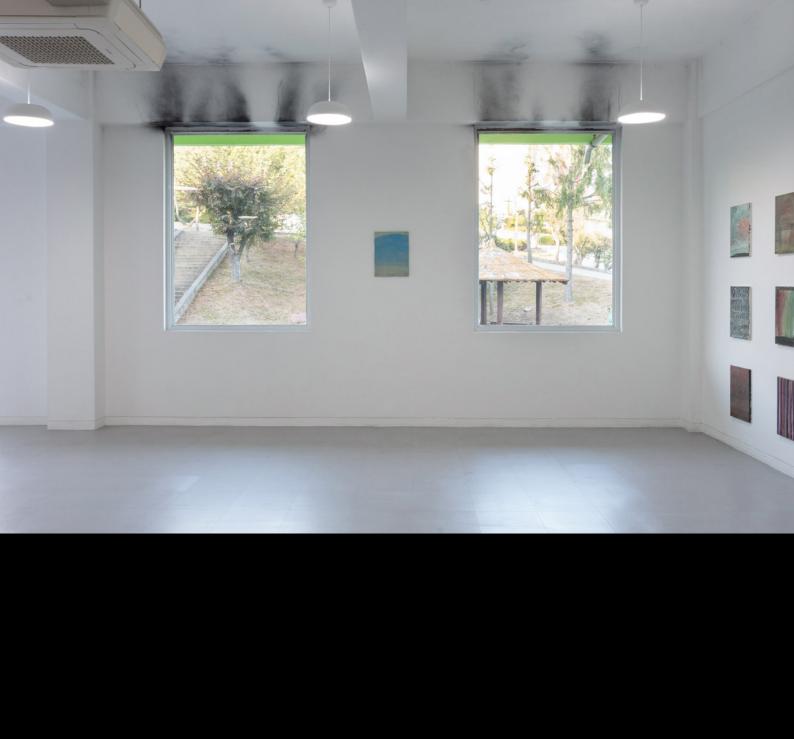
A 22 EMER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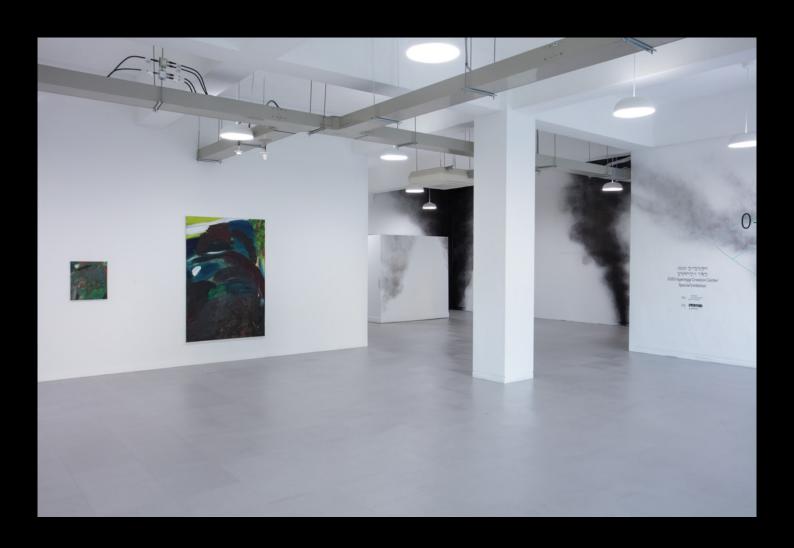
김수나, 검영구, 민예기, 박관택, 박소영, 정현두, 조선경, 조현택

Suna Kim, Younggu Kim, Hyeki Min, Kwantaeck Park, Soi Park, Hyundoo Jung, Sunkyung Cho, Hyuntaek C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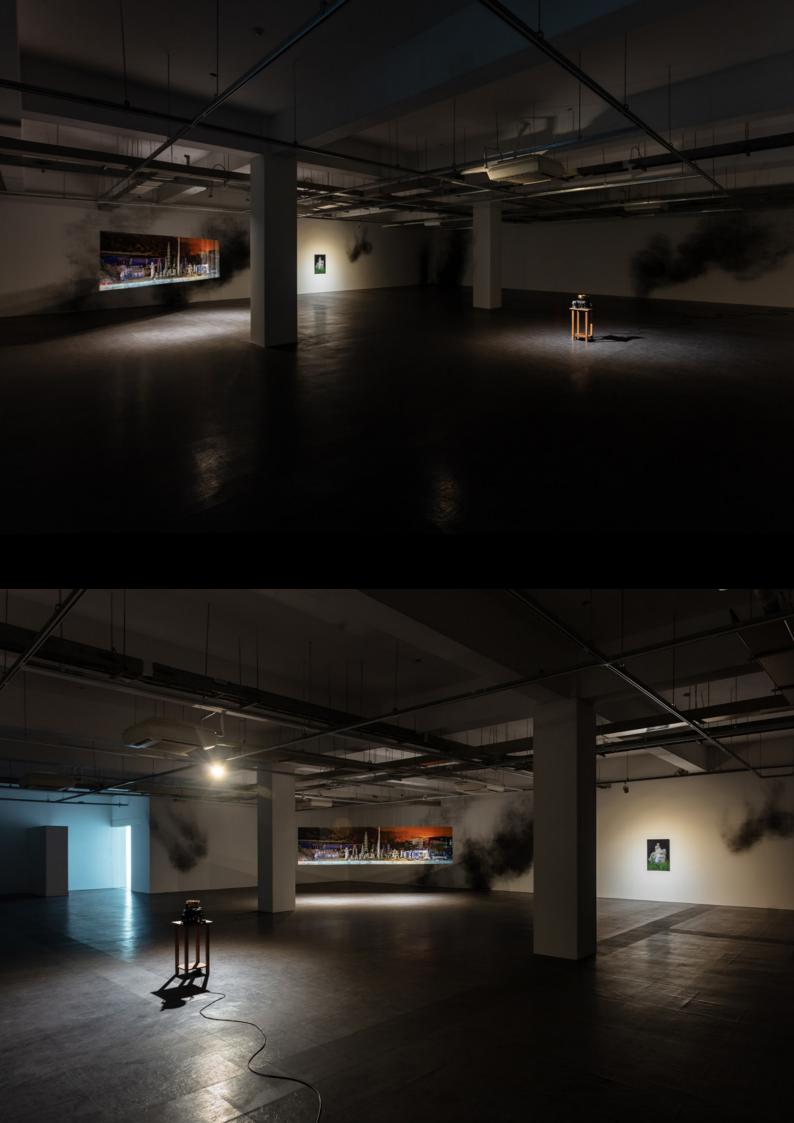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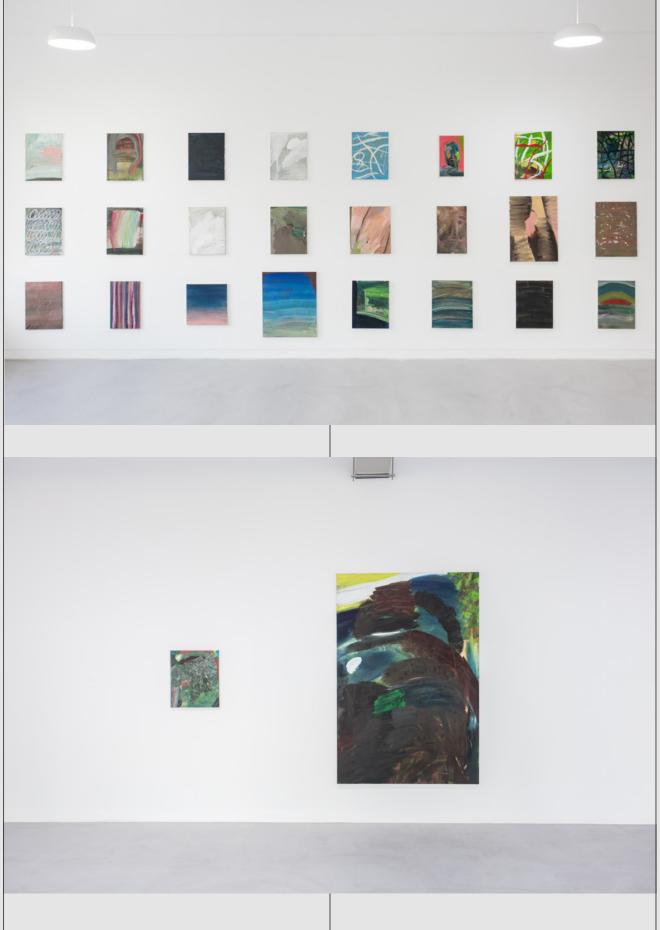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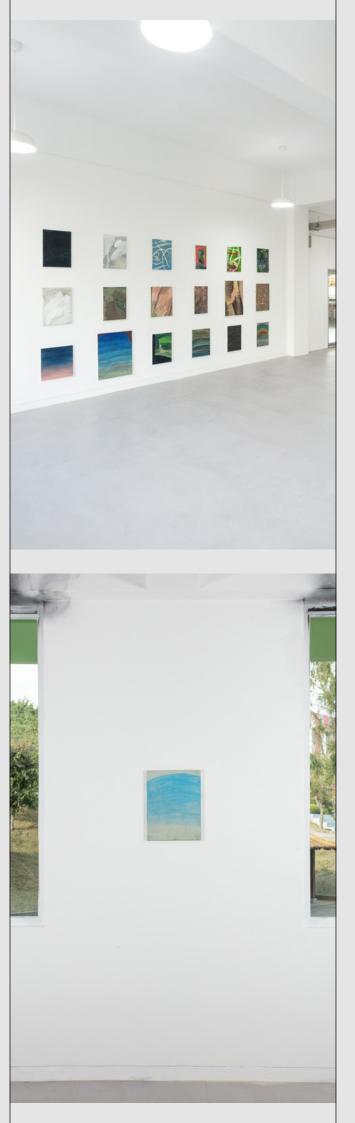




정현두, '2019. 10. 30. - 2020. 09. 11.' 연작, 2020, 캔버스에 유채, 가변 설치

Hyundoo Jung, 'Oct. 30, 2019 -Sept. 11, 2020' Series, 2020, oil on canvas, dimensions variable o 전 연 두 일상에서 경험한 풍경과 풍경에 대한 심상, 작업을 통해 생겨나는 감각, 신체의 궤적 등,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다양한 경험들이 회화로 번역되어 회화적 물성을 갖는다. 회화적 물성을 지니게 된 존재들은 본래의 의미와는 다른 회화적인 이야기를 생성한다. 나의 회화와 회화의 근거가 되는 경험들의 관계를 이해하려 한다. 이를 통해 나와 세계를 다시 이해하려 한다.

Various experiences that cannot be found in reality—such as images of landscapes and landscapes experienced in everyday life, sensations generated through work, body trajectories and so on—get translated into paintings and have pictorial properties. Beings that are given pictorial properties create pictorial stories that are different from their original meaning. I would like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y paintings and the experiences underlying the paintings. Through this, I would like to understand myself and the world again.



Reviews on Artworks

^{박지}형

정현두의 회화는 스스로 체득한 현실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사소한 사건의 기억이나 농도 짙은 인상들이 작가의 의식 어딘가에 잠재되어 있다가 문득 표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 그것은 그림이 된다. 최근 그의 실험은 회화의 형식적 완결성을 향한 것이기보다, 주된 경향성의 틀에 회화를 묶어두지 않고도 행위를 지속해갈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일련의 연작처럼 보이기도 하고 개별적 존재로 느껴지기도 하는 프레임은 저마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 뚜렷하거나 단단한 형상은 드러나지 않고, 밝거나 탁한 색들 사이의 점진적 이행, 거친 선들의 중첩, 뭉개져 흘러내리는 물감의 방향성 같은 변화 양상들이 감지될 뿐이다. 이는 사적인 감각을 스스로 되새김질하며 구축한 풍경의 조각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것과도 같다. 매 순간 작가의 신체와 캔버스는 그 거리를 달리하며 미처 예상치 못했던 개연성을 토대로 이미지를 만들어간다.

또한 작가는 작품이 단일한 외부의 이미지로서 기능하는 것을 넘어 지속적으로 상상의 공간을 창출하고 수용자에게는 감각의 통로를 열어주는 다층적인 기호체계로서 작동하기를 희망한다. 말하자면 불특정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생산된 그림들은 언제든 그 규모와 Jihyung Park ······ Hyundoo Jung Independent Curator

The paintings of Hyundoo Jung are based on his relationship with the reality that he has learned by experience. His memory of trivial events or deep impressions becomes dormant somewhere in his consciousness; the moment it pops up on the surface, it becomes his painting. Instead of seeking the formal completion of a painting, his recent experiment is to search for the methodology to continue his action without tying the painting to the frame of a certain main tendency. Each canvas has a different expression, seemingly a part of a series or an individual work. With no distinct or solid forms, it shows only the transition between light or turbid colors, the juxtaposition of rough lines, and the orientation of squished paints running down. You can say that an assembly was formed with fragments of a landscape built through the rumination of the artist over his personal sensations. Each moment, the distance between the artist and the canvas changes, and the image is created based on unexpected probability.

Moreover, the artist hopes that his works will function as a multi-layered system of signs that constantly create the space for imagination and open the gate of sensation for viewers, not just as a homogeneous outside image. In other words, the paintings that were

구조를 수정할 수 있는 주체적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가 작품과 복합적으로 맺었던 유무형의 조건들을 넘어 회화가 스스로 이야기를 조직해 갈 수 있다는 믿음은 평면을 견고한 물리적 한계들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그가 남긴 흔적은 누군가에게는 구체적인 형상이 될 수도, 미묘한 온도를 느끼게 하는 환경이 될 수도, 또 다른 경험을 상기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라도 그의 화면 속에서 정지된 시점이 아닌 이행하는 시공의 지층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잃지 않아야 한다.

produced in an unspecified time should include an independent possibility to modify their scale and structure. The faith that the paintings can organize stories by themselves beyond the tangible and intangible conditions in which the artist related himself to them frees the flat surface from the strict physical limitation. The traces that the artist has left can become a concrete form, an environment of a subtle temperature, or a catalyst for recalling another experience for someone. Thus, we should not lose the expectation that we could discover, not a fixed viewpoint, but a new stratum of changing time and space in his screen.

안부**······** 정현두 작가, 별관 기획자

어긋난 풍경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수 없이 많은 장면을 지나친다.
대개는 반복적인 장면을 지나칠 수 있고 그 장면을 시간이라는 단위에 기대어 분류하고 기억하기 마련이다. 이마저도 의식적으로 기억을 찾아 거슬러 올라갈 때이며 시간의 단위는 찰나를 기억하기엔 너무나 순간이자 형식적인 분류일지 모른다. 오전이나 밤, 며칠이거나 몇 시가 아닌 그 때, 여기에서의 '때' 가 시간의 어떤 순간이나 부분이 아닌, '장면' 혹은 '풍경' 이라는 상황으로 분류하여 일상을 기억하는 방법을 취한다면 '그 때'는 어긋난 것일까?

'풍경'이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본다. 풍경은 일상의 단어라고
하기에는 그다지 쓰임이 없는, 특별히
그러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거창하기
이를 데 없는 단어가 아닐까 하고 말이다.
장관이라 불릴만한 자연을 마주할 때가
아니면 대체로는 미술의 영역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나 쓰임이 있는, 그마저도
'풍경화' 나 '산수화' 같은 자연을 담은
명칭 따위에 부여된다. 이미 어떤 모습
'~scape'처럼 수많은 단어가 이어져 다양한 풍경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landscape, cityscape. nightscape, mindscape'

Anbuh ······ Hyundoo Jung Artist, Director of Outhouse

A Dislocated Landscape

We pass numberless scenes in our daily life, living day by day. The scenes are mostly repeated, and we classify and remember them using the unit of time. This is only true when we trace back in memory. The unit of time may be much too formal to recall an instant or a moment. If we remember our daily life by means of "time," and if time here does not mean a morning, a night, a day, or an hour, but instead, time from a "scene" or a "landscape" — is "time" dislocated?

Let me think about the word "landscape." it may be almost useless to be a language for daily use; it may be much too bombastic without a certain effect. We use the word "landscape" mostly in art, unless we encountered a great scenery; even in art, it is used to call the paintings that capture nature the "landscape painting." With the suffix "-scape," we can make many words that describe various scenes: landscape, cityscape, nightscape, mindscape... We may fill this entire page with words that end with "-scape." Let me think about "landscape" again. Let me use the word to refer to our concentration on a certain situation, a moment, or a scene; not to a scenery or a view of nature.

Here, we have a painting of a

buh

윦

등 나열하자고 마음만 먹으면 이 한 페이지는 다 채울 수도 있지 싶다. 이쯤에서 다시금 '풍경'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본다. 자연경관이나 경치의 영역이 아닌 어떤 상황이나 순간, 장면에 집중하는 형태의 단어로 지칭하는 의미가 되어본다.

여기 이상한 풍경의 그림이 있다.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말을 해줘도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풍경. 어딘가 지워진 흔적, 무언가 남겨졌거나 남아있는 잔재의 파편들. 감추려 하지만 선명하고, 흐트러짐을 통한 강조된 드러내기 같은 흐름이다.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보이는 것과 보여주지 않는 것이 있다. 보고 있지만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때로는 무언가 보이기도 하지만 실재적이지 않을 수 있다 느낀다. 그래서 유독 이 그림들을 보고 있자면 눈에 보이는 형상을 따라가 보게 된다. 남겨 놓지 않았지만 무심히 흩뿌려 놓은 발자취를 따라 눈과 머리를, 그리고 마음을 움직여본다. 운동감이 전해진다. 가볍게 시작할 것 같은 움직임은 점차 무거워지기도 한다. 예상했던 것보다 묵직한 움직임이다. 너무 가볍거나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무거움이 아닌, 적당한 무게감이라고 해야 할까? 일정한 패턴이 있지는 않다. 다만 종종 느껴지는 운동감은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스며들어있으며, 이때 일정한 율동감이 살아난다. 자유로운 율동감은 나도 모르게 어느새 도치되어

weird landscape: a landscape that can't be interpreted without explanation or even with explanation; some erased traces and some fragments that are left behind. It is a flow that tries to hide itself but is vivid and is highlighted by being in disorder.

Looking at the painting, I discover that there is something I see and something I can't. I see it without knowing what I see; I see something for a moment, feeling somehow unrealistic. This makes me even more concentrated on following the form I can see while looking at the painting. There is a footstep that is not intentionally left behind but scattered; I move my eyes, head, and mind to follow it. I feel the movement. The movement that may have started lightly becomes gradually heavier. It is a heavier movement than I expected. The weight is neither light nor overwhelmingly heavy; should I say it is just the right kind of heavy? There is no consistent pattern. But the frequently detected motions are naturally and repeatedly pervaded, making a consistent flow. In spite of myself, the liberated flow is inverted into an unconscious flow, leisurely placed on the rhythm. The rhythm in itself discloses the dislocation and repeatedly disappears.

A dislocated landscape. Perhaps I may want to say an expanded landscape. By "expanded," I don't mean the expansion of a natural landscape as it may usually mean, but the involvement 무의식의 흐름처럼 유유히 리듬 위에 놓여있다. 리듬은 다시 일정한 율동 속에서 빗나감을 드러내고 사라짐을 반복한다.

어긋난 풍경. 어쩌면 확장된 풍경이라 말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다만 '확장된다'라는 범위에서의 풍경이 단순히 큰 범주의, 통상적으로 말하는 자연 경관의 확장이 아닌 풍경의 영역 자체가 벗어남에서 오는 일종의 유쾌함이자 통쾌함이 동반됨을 말한다. 그림과 나의 사이에서, 작가와 나의 사이에서, 그림과 작가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빗나가고 어긋난 '그 때'를 추적하고 따라간다면 어디에도 없지만 어디에나 존재하는 그 지점에 조금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with gaiety and satisfaction caused by the dislocation of the domain of the landscape. I expect to be able to get closer to the point that exists nowhere yet everywhere when I trace and follow the "time" that constantly deviates and gets dislocated between the painting and myself, the artist and myself, and the painting and the art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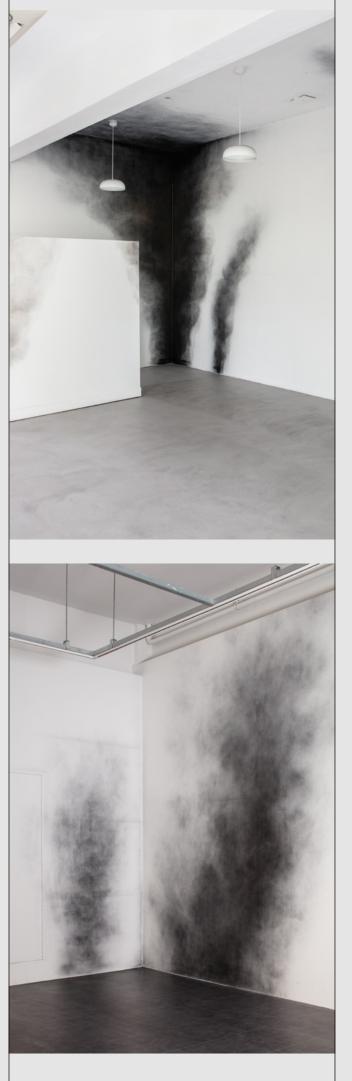




김수나, 무제, 2020, 먹, 가변 설치

Suna Kim, Untitled, 2020, Meok(Korean ink), dimensions variable 전시장 벽면에 그을음 이미지를 연출하려한다. 그을음이라는 것은 불로 인해 생기는 흔적으로, 대개 평범한 일상이 아닌 어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이다. 또한 불은 무언가를 확학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을 겪은 대상이나 공간은 그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을음의 이미지는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막연한 공포감을 야기한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또렷하게 분석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현상•사건으로부터 오는 모호한 공포감을 전시공간 안에서 연출해 보고자한다.

An image of soot is created on the wall of the exhibition hall. Soot is a trace of fire. It is an image that can be usually seen at the scene of an unfortunate accident, not in ordinary day-to-day life. In addition, it changes something chemically. It is often impossible to revert an object or a space that has undergone such event back to its previous state. As such, the image of soot itself causes a vague sense of fear in us. I would like to create such vague sense of fear in the exhibition space that is caused by a phenomenon or an accident that surrounds us, but which we cannot clearly analyze or cope with as to where and how it began.



Reviews on Artworks

사원

박승연 ······김수나 통의동 보안여관 큐레이터

무언의 그을음

전시장에 들어가자마자 곳곳에 그을음이 눈에 띈다. 여러 작품 사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이 흔적은 어떠한 냄새도 내뿜지 않고 발화지점도 알 수 없는 무질서한 자국으로 전시장 내 하얀 벽과 천장을 뒤덮고 있다. 순백한 공간과 대비되는 그을음을 외면하고 싶어도 시선이 자꾸만 그곳을 향해 머무르게 되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며 이 사건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마치 화재가 발생했던 공간처럼 느껴지게 됨으로써 기존에 경험했던 관람 방식에서 벗어난 부자연스러운 방향성을 취하게 되고 태도도 위축시킨다. 이러한 불안상태에서 사건을 유추하다 보면 현재 상황이 인지되기 시작하고 공간의 고유성은 흐려져 탈공간화 되며 더 나아가 현존재까지 깨닫게 된다. 이 인식은 그을음을 벽에 새긴 김수나 작가의 <무제> 작품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건의 흔적으로 다가오는 〈무제〉 작품은 전시장에 연출된 형상을 통해 관람객에게 보여지는데 이때 관람객은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불안감으로 인해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공간은 현재라는 Seungyeon Park ······Suna Kim Curator of Boan 1942

Wordless Soot

You see the soot here and there as soon as you enter the exhibition hall. The trace that asserts its existence among other works on display doesn't have any smell; it is the marks in disorder, covering the white walls and ceiling of the exhibition hall without letting us know the point where the fire started. You may want to ignore the soot that is in contrast with the pure white space, but your eyes are repeatedly drawn and you wonder what happened here, looking for the clue. You feel as if there was a fire in the space, which makes you take a different, unnatural way to take a look with an intimidated attitude. As you make a guess about the accident in anxiety, you perceive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originality of the space gets blurred, which leads to despatialization, and you realize the existence of yourself. This perception started Untitled, the work of artist Suna Kim who engraved the soot on the wall.

Untitled approaches us as the trace of an unidentified accident, shown to the viewers as a displayed form in the exhibition hall; the viewers instinctively feel anxiety, which leads them to discover themselves existing in the space. Space is the background that makes us perceive the time of

시간을 인지하게 하고 인간이 실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배경인데 김수나 작가는 그을음을 전시장에 표현함으로써 미지의 상황과 상상력을 불어넣고 장소 고유의 정체성에 균열을 발생시켜 사건을 의도적으로 일으키고 있다. 이를 본 관람객은 머물고 있는 공간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다가와 자기 방식대로 현 상황을 판단하게 되고 본인의 위치를 재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우리가 '죽음을 향해 다가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인식을 하면 인간의 본래성을 회복하도록 돕는다고 한다. 김수나 작가의 〈무제〉 작품을 통해 새로운 공간 경험을 하여 존재에 대한 방향을 찾아보고 더 나아가 그 의미에 대한 물음을 발생시켜 자기 자신의 고유한 모습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present and the fact that we exist; Kim intentionally gives rise to an accident by expressing the soot in the exhibition hall, infusing mysterious situation and imagination and generating a crack on the original identity of the space. The viewers who see this get to gain a strong perception about the space where they are located, make a judgment on the current situation in their own way, and reaffirm their position. According to Heidegger, when we face the fact that we are an "existence approaching death" and we have a perception about "death," it helps us recover authenticity. Through Untitled, you will be able to feel the authentic self as you experience a new space, finding directions about the existence and asking questions about its significance.

Reviews on Artworks

^뚴긷영

백기영 ······김수나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운영부장

김수나는 생태 환경적 재난의 상황을 기록하는 이미지를 재단하고 잘라 내거나 분절시키는 사진 및 입체, 설치작업을 수행해왔다. 경기창작센터의 전시실 한구석을 장악하는 검은 연기는 불길이 만들어낸 그을음을 상연한다.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 지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의 문제처럼 눈으로 감지할 수 없는 것들이 만들어내는 삶의 변화는 인간에게 두려움을 준다.

올해 전 세계는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사망자가 백만 명에 이르고
감염자만 4천만 명을 넘어섰다. 남북극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 불길한 기운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검은 그을음은 공간 구석구석으로 흩어진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공포의 흔적들은 악몽처럼 관람자의 시선을 끌어당긴다. '유령 하나가 유럽을 떠돈다.'고 했던 〈공산당 선언〉에서 유령은 공산주의를 의미했다면, 우리 시대를 떠도는 유령은 무엇인가? 첨예화되어 가고 있는 금융자본주의는 99%의 자본을 남김없이 먹어 치우는 중이다.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Ki-Young Peik ······Suna Kim Director of the Operations Department of Buk-Seoul Museum of Art

Suna Kim has practiced photography, sculpture, and installation wherein she cut and divided images recording the situations of ecological disasters. The image of black smoke that dominates a corner of the exhibition hall of the Gyeonggi Creation Center performs the soot created by the fire. The changes in our life caused by invisible things, such as the environmental problem including the COVID-19 pandemic and global warming, make us fear.

This year, the COVID-19 pandemic has caused a million deaths and over 40 million confirmed cases all over the world. The earth's temperature is rising, and the glacier of the poles is melting to make the sea level rise — but what can human do in this ominous atmosphere?

The black smoke scatters throughout the space. The traces of fear occupying the space attract the eyes of viewers like a nightmare. If the "specter" meant communism in "A specter is Haunting Europe" from the Communist Manifesto, what is the specter in our age? The advanced financial capitalism is gulping down 99% of the capital. The automation of machines with Al is taking over everyone's occupation. Becoming more and more rapid, the communication technology produces

기계의 자동화는 모두의 직업을 빼앗고 있다. 점점 더 빨라지는 통신기술은 SNS를 통해서 무한한 정보를 생산하고 '가짜 뉴스'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덧붙여, 자기 고향을 떠나 난민이 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것의 원인이 환경문제든 전쟁이든 삶은 점점 더 위태로워진다. 유령은 공포의 이름이다. 공간 깊숙이 자리 잡은 그을음은 공포의 흔적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공포의 열기를 뿜어내지 못한다. 하지만 그것을 응시하고 있노라면, 식어버린 공포가 다시 살아날 것처럼 보인다. 도망쳐 보려고 하지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가위눌림, 우리 모두는 짓눌린 상태다.

limitless information on social media and makes the world filled with "fake news." Plus, there are more and more people who left their homeland and became refugees. Whether it is for the environmental problem or a war, life is getting more and more threatened. "Specter" is the name of fear. The soot located in a deep corner of the space doesn't radiate the heat of fear anymore because it is only the trace of fear. When you stare at it, however, the fear that has cooled down seems to be reignited. You may try to run away, but you are stuck in sleep paralysis; we are all weighed d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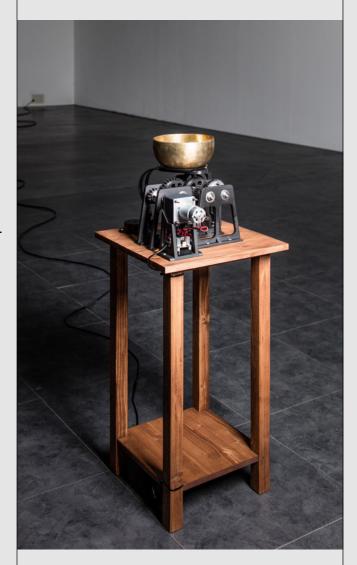


민혜기, 보이드, 2020, 혼합 매체, 가변 설치

Hyeki Min, Void, 2020,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어떠한 소리는 물리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순간을 불러온다. 이는 소리가 시간과 공간의 흐름을 가장 즉각적으로 감지하게 만들어 주는 진동이며, 또한 이러한 진동은 개인의 기억과 경험에 따라 각각 다른 자신을 환기해 내기 때문이다. 〈보이드 Void〉는 금속 그릇을 계속 두드리는 기계를 통해 모터와 금속 그릇의 진동하는 소리, 기계 소음으로 전시장 안을 가득 채운다. 관객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어둠 속에서 금속 그릇을 반복해서 두드리는 기계는 구도자의 모습을 닮았다.

Certain sounds make you think of moments that you cannot physically experience. This is because sound is the vibration that helps us sense the flow of time and space most immediately. In addition, such vibration evokes a different self according to the individual's memories and experiences. Void fills the exhibition hall with the vibrating sound of motors and metal bowls, including mechanical noise through a machine that keeps hitting a metal bowl. The machine that repeatedly hits a metal bowl in the dark, with or without an audience, resembles a seeker of truth.





Reviews on Artworks

그 수 정 김수정 ••••• 민혜기 독립 큐레이터

> "어떤 전시들은 당신의 정신을 채워주지만 이 전시는 비워준다."

온라인 전시로 전환된 경기창작센터의 기획전시 《O인칭 시점》에서 민혜기 작가의 신작을 한동안 바라보며 떠오른 문장이다. 이 문장은 『뉴요커 』의 비평가인 피터 슈엘달 이 2015년에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이 개최한 온 카와라의 회고전 《On Kawara: Silence»을 보고 쓴 전시 리뷰의 맺음말이었다. 나는 이 문장이 지극히 반복적이고 일관적인 예술활동으로 귀결된 작가의 일생을 보여준 전시에 대한 온당한 소감이라 여기며 내내 기억하고 있었다. 이후 내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는지 작품을 보는 행위를 통해 의례 인풋을 구하던 감상태도가 조금 차분해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적막에 가깝도록 고요한 경기창작센터에서 다시 이 '비워준다'던 문장이 떠올랐다. 아마도 작가가 작품에 붙여준 이름 <보이드 내게 작동한 모양이다.

민혜기 작가는 코드라는 약속의 언어이자 명령어를 써서 반복적인 결괏값을 갖도록 하는 기계를 만들어왔다. 신작 〈보이드〉도 반복적인 퍼포먼스를 하는 모터 달린 기계다. 그런데 〈보이드〉를 포함해 Sue Kim------ Hyeki Min Independent Curator

"Some art shows fill your spirit. This one empties you."

This sentence popped up in my mind as I stared at the new work of Hueki Min for a while at the special exhibition "O-person Perspective" of the Gueonggi Creation Center, which was transformed into an online version. Peter Schjeldahl, the art critic of The New Yorker, wrapped up his review on "On Kawara: Silence", the retrospective of On Kawara held by the Guggenheim Museum in New York in 2015, with this sentence. I kept the sentence in my memory as it seemed very proper for an exhibition that showed the life of an artist who led an extremely repeated and consistent practice of art. It must have had a certain influence on myself because my usual attitude toward artworks — looking for an input slightly softened. And after a few years, at the Gyeonggi Creation Center that was silent, or almost desolate, I recalled the expression "empty" again. Maybe the title of the work Void had something to do with it.

Artist Hyeki Min has created machines that show repeated results using the code, the language of promise and command. Her new work *Void* is also a machine with a motor that performs a repeated motion. Still, there is a remarkable difference

그가 만드는 작업은 기술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새로움에 몰두하는 작가들의 것과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민혜기가 만드는 기계들의 지향점이 언제나 인문학적인 사유를 향해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동안 작가가 시간에 대해, 일상의 반복에 대해, 우리의 선택에 대해 단출한, 때로는 극적인 움직임을 수행해내는 기계를 만드는 것을 보았다. 〈보이드〉는 일정한 시간차를 두고 금속 그릇을 때리는 일을 반복하는데, '퍼포먼스'를 '수행'이라 번역하는 우리말의 한계가 이 작품에서는 오히려 보완이 되는 느낌이다.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수행에 정진하는 듯한 움직임을 지속하기 때문이다.(작가는 기계가 구도자와 닮았다고 표현한다.)

사실 작가가 성취하고자 한 것은 이 수행으로 작품이 만드는 소리의 음량과음색, 그리고 잔향이었다. 정확한 속도로작동하는 채(막대기)가 금속그릇을 때리면 커다랗고 청아한 쇳소리가 난다. 명징한소리의 환기에 듣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15초에 가까운 잔향을 들을 수 있다. 전시장은 소리의 울림이 좋았다. 이것을 아주 미니멀한 타악기라 할 수도 있을까.이 수행적 움직임과 소리들은 작품이 켜져있는 동안 반복된다. 관자로서, 또 청자로서한동안 천천히 작품 주위를 돌아보았다. 반복은 우리 삶을 떠나지 않는 운동임을 새삼스레 인식하게 된다. 민혜기의 작업에 사운드가 결여되어 있었던 사례는 많지

between her works including Void and other artists who indulge in newness using the ingredients of technology. It is the fact that the machines created by Min always point to humanistic thoughts. I have witnessed how Min has created machines that perform simple, or sometimes spectacular, movements about time, the repetition of our routine, and our choice. The performance of *Void* involves repeatedly hitting a metal bowl at regular intervals. When "performance" is translated into Korean, it sometimes means "practice." Void justifies the translation. It is because it continues the movement that looks like practice to gain enlightenment. (In the words of the artist, the machine resembles a truth seeker.)

What the artist tried to achieve was the volume, tone, and reverberation of the sound made by the practice. When the stick hits the metal bowl at a regular pace, a loud and clear metal sound is generated. The clear sound awakens you to concentrate on listening to the reverberation that continues for about 15 seconds. The sound echoed well in the exhibition hall. Could I call it a very minimal percussion? The practice of movements and sound repeats over and over while the work is on. As a viewer and listener, I slowly looked around the work. And I realized that the "repetition" is the movement that doesn't leave our life. Min rarely made a work without sound. As an artist 않지만, 피지컬에 월등히 능했던 작가가 사라지고 마는 소리를 작품으로 만들며 무언가를 비워낸 듯하다. 관객의 입장에서 보자면, 소리라는 것은 청자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남는 순간의 파동이므로, 각자가 느낀 감정을 여음 응 으로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 짐작해본다. who has been tactfully handling the physical, however, she seems to have emptied something as she rendered the disappearing sound into her work. From the viewpoint of viewers, the sound is a momentary wave that is stored as a subjective experience. Thus, I guess each of them will carry home the feeling they felt as the lingering sound.

Reviews on Artworks

우아름 ••••• 민혜기 미술비평가

의미의 조수간만

이따금 한 번씩 전시장을 채우는 공명음의 발원지는 민혜기 작가의 〈보이드 Voic 나무 스틱이 금속 그릇을 일정한 간격으로 타격하도록 작동하는 기계 장치와 나무 좌대로 구성된 이 작품의 정면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모터들의 멈추지 않는 회전 운동을 노출하고 있다. 나무 스틱이 금속 그릇을 타격하는 장면은 작품의 후면으로 돌아서야 만날 수 있다. 싱잉볼의 공명음만을 생각한다면 바뀌어 있는 것 같은 작품의 정면과 후면의 배치가 의미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쉼 없이 돌아가고 있는 기계장치의 존재감이다. 이따금 한 번씩 울리는 공명음보다 더 높은 밀도로 전시장을 메우는 소리 또한 모터들의 회전 운동이 자아내는 기계 소음이다. 커다란 공명음은 전시 공간을 한동안 맴돌다가 사라진다. 그러고 나면 다시, 쉼 없는 모터의 작동음이 공간을 빈틈없이 메운다.

민혜기 작가는 그간 기계 장치를 제작하거나 공간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일상의 의미와 무의미가 교차하는 장면을 반복 재현하는 늘어난 순간을 빚어 관객을 그 속으로 초대해왔다. 공간 전체를 채우기도 했던 작품의 스케일은 어느덧 한 Areum Woo ······ Hyeki Min Art Critic

The Tide of Meaning

The source of the reverberation that fills the exhibition hall once in a while is Void, the work of Hyeki Min. The front of Void, comprising a machine that is operating to hit a metal bowl with a wooden stick at regular intervals and a wooden pedestal, is exposing the ceaseless rotation of motors in gear. If you want to see the metal bowl hit by the wooden stick, you have to look at the back of the Void. If you only think about the reverberation of the singing ball, the arrangement of the back and front of the work seems to be reversed. This inversion highlights the presence of the machine, which restlessly works to make everything possible. Moreover, the sound that fills the exhibition hall with higher concentration than the reverberation that rings once in a while is the noise of the machine that is made by the rotation of the motors. The loud reverberation disappears after lingering in the hall for a while. Then, the restless working sound of the motors seamlessly fills the void.

So far, Min has invited the audience to an extended space that represents the scene to alternate meaning and meaninglessness by installing or making machines in a space.s The scale of her work, which was once large enough to fill the

평 공간에 담길 수 있을 만큼 축소되었지만, 작품이 빚어내는 정동 등 은 한층 또렷하게 전체 공간을 채운다. 단출하게 지어진 작품의 제목은 그 모든 정동의 가능태들 사이에 어느 쪽에 치우침 없이 똑같은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밀물과 썰물처럼 몰아닥쳤다가 사그라지는 인생의 의미들 사이의 끝없는 길항작용이다. 희망과 절망, 의욕과 권태, 의미와 무의미의 모든 대조되는 의미들 사이 어디쯤에서 무엇을 감각할지는 보는 이의 몫이다. 〈보이드〉는 다만 그런 일들을 가늠해 볼 만한 한순간을 꾸준히 내어주고 있다.

whole space, has been reduced to be contained in three square meters, but the dynamic generated by it fills the whole space more clearly. The simple title of the work is keeping the same distance, not inclined toward any side, among all dynamics. It is an incessant antagonism between the meanings of life that encroach and recede like ebb and flood. Somewhere between all contrary meanings, such as hope and despair, will and ennui, and meaning and meaninglessness, viewers can choose what to feel. Void is continually providing moments to weigh such th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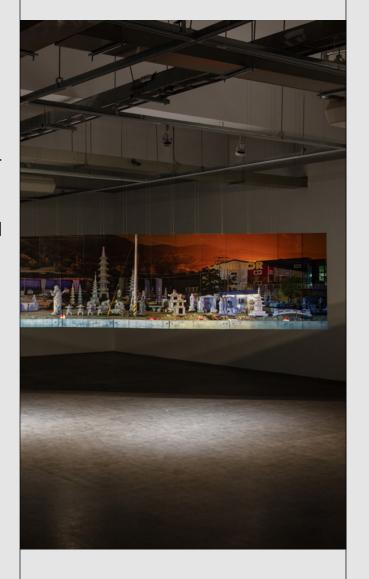
조현택, 스톤 마켓, 포천, 2020, 잉크젯 프린트, 금속판, 120cm×480cm

조현택, 스톤 마켓, 파주, 2020, 잉크젯 프린트, 금속판, 90cm×60cm Hyuntaek Cho, Stone Market-Pochun, 2020, inkjet print, metal plate, 120cm×480cm

Hyuntaek Cho, Stone Market-Paju, 2020, inkjet print, metal plate, 90cm×60cm

Artist's Note

최근 석재상의 야간풍경을 촬영하고 있다. 부산에서 작업을 하던 초기에 밤늦게 시작된 촬영이 이른 새벽까지 이어진 적이 있었다. 열중하여 사진을 찍고 있던 내 옆을 지나가신 할머니 한 분이 부처님 석상 앞에서 합장을 하고 한참을 서 계시는 걸 봤다. 촬영을 멈추고 바라보는 짧은 순간에 내가 자칫 신성한 대상을 불경스럽게 찍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뒤 정신을 차려 주변을 보았을 때는 여전히 시끄럽게 지나가는 택시, 첫차 운행을 시작하는 버스, 맥락 없이 놓여 진 수많은 석조각들, 그리고 밤을 새서 켜져 있던 현란한 간판들, 현실에 놓인 상황은 다시금 처음의 마켓이었다. 마치 마네킹에 옷을 입혀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의류점처럼, 양팔을 쉴 새 없이 흔들며 어서 옵쇼! 손짓하는 공기인형처럼 여러 기호를 가진 손님들을 위해 수많은 종류의 심볼들이 줄을 서 있다. 간혹 불상 옆에 성모상이 서 있고 십이간지 석상들이 서 있기도 한다. 마치 "무엇을 좋아할지 몰라 여러 가지로 준비했어." 라고 하는 듯하다. 우리 시대 종교와 신앙을 석재마켓에서 본다. 유행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수많은 공산품들과 유령처럼 흐느적대는 사람들 사이에 난장판이 된 시장통을 보고 있는 느낌이다.





Hyuntaek Cho

Currently, I am shooting the night scenery of stone statues. In the early days of my work in Busan, there was a time when I continued a shoot that started late at night until early dawn. A grandmother passed by me as I was taking pictures with enthusiasm. I saw the grandmother standing still for a long time with her hands pressed together in front of a Buddha statue. In the short moment that I was looking at her, I feared that I was being disrespectful by taking pictures of a sacred object. After a while, when I woke up and looked around, I was back in the reality at the market with the taxis driving off loudly, the first operating bus of the day making its way, the countless pieces of stone placed out of context, and the glamorous signboards that were lit all night. Like a clothing store waiting for customers with clothes on a mannequin, and like an air puppet waving its arms constantly to let you in, there are many types of symbols lined up for guests with different tastes. Sometimes, there are statues of the Virgin Mary standing next to the Buddha statues, including statues of the Twelve Zodiac Statues. It's like, "I don't know which to choose, so I prepared various things." I see the religion and faith of our time in the stone market. It feels as if I'm seeing a market that has become a mess between countless industrial products that come and go like fashion and those who sob like ghosts.

니 명 수 김병수 ······ 조현택 미술평론가

> 조현택의 살아있는 사진-조각, 혹은 라이브 포토 인스톨레이션

석물 연작은 일종의 '살아있는 사진-조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굳이 영어식 표현을 쓰자면 '라이브 포토 인스톨레이션 live Photo

'이라고 이름 지을 만하다. 한 지점에서 시점을 약간씩 이동해서 전체 화면을 구성한다. 그리고 그 각각이 다른 판에 옮겨져서 유동과 변형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라이브 포토 인스톨레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게도 되는 것이다. 사진이 예술로서 그리고 동시대 미술에서 동시대성을 접속하는 영역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작인 <스톤마켓>은 석물들의 세계를 통해 '우리 삶'을 은유한다. 리서치를 바탕한 메타포이다. 그의 진지한 화면이 이해하는데 무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은 이유이다. 이미 우리 세계에 '상업적으로' 존재하는 배치, 혹은 디스플레이를 단순한 질서나 하이어라키로 보지 않고 일종의 메타포로 읽고 있다는 뜻이다. 이 부분이 신기한데 그는 그 질서, 거창하게 말하면 자본주의 미학(요즘 용어상으로는 한물갔지만 아직 막강한 신자유주의 방식)을 인정하고 그대로

Byoungsoo Kim ······ Hyuntaek Cho Art Critic

Hyuntaek Cho's Live Photo

— Sculpture, or Live Photo
Installation

The series of Stone Figures can be regarded as a form of "live photo - sculpture." It can also be called "Live Photo Installation." The whole screen is constructed with several perspectives that are altered little by little. Each perspective is transferred to another display to actualize the flow and transformation. Thus, the work can be dubbed Live Photo Installation. Photography can be said to be the domain to be connected to contemporaneity in contemporary art. Cho's recent work, Stone Market, uses the world of stone figures as the metaphor of "our life." The metaphor is based on the artist's research. It is why his serious canvas doesn't seem to be unnatural or unreasonable. That means he reads the distribution or the display that already exists "commercially" in our world, not as a simple order or hierarchy but a kind of metaphor. What seems to be curious is that he appears to acknowledge the order, or to exaggerate, the capitalist aesthetics (an outdated term but still a powerful tool of neo-liberalism) with the aesthetics of mimesis. The existence of the stone figures has a concrete symbolism. It can be said to

미메시스의 미학으로 감당하는 것일까. 석물들은 그 존재가 구체적인 상징성을 갖는다. 거의 키치의 경지라고 할 수도 있다. 라파엘의 회화 <아테네 학당>은 다양한 학파의 인물들이 나름의 개성을 연출하고 있는 장면이다. 화가의 의지에 의해 반영된 세계인 데 비하여 조현택이 찾아내고 찍은 사진의 세계는 고고학적 탐구와 문화인류학적 조사에 바탕을 두고 진행된다. 현대미술은 세계 제작의 방식으로서 분쟁적 사유를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이 세계는 '형이상학적이고 정치적인' 것과 '정치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이 뒤섞여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그러한 세계관에 대한 피로감 때문인지 요즘 안정감 있는, 안전한 풍경이 그립다. 달라도 신뢰할 수 있는 편안함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상으로서 사치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게 신앙 아닐까. 다른 세계를 만들 필요 없이 살고 싶다는 욕망이야말로 신앙의 의미일 것이다. 조현택의 화면은 미학적으로 그러한 아름다움을 구현한다. 우리 시대의 예술에서 망각된 혹은 대체된 미의 세계를 이상적으로 탐구하면서도 그 분쟁의 현장을 현실적으로 사진으로 담아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be almost kitsch. The School of Athens, the painting of Raphael, shows figures of different academic groups with their own unique individuality. While it shows the world that reflects the will of the artist, the world that is found and photographed by Cho is based on archaeological research and the cultural anthropologist investigation. Contemporary art sometimes seems to prefer disputable thoughts as a way of world-making. Thus, the world seems to be the place where the "metaphysical and political" and the "political and metaphysical" are mixed. Still, maybe because of our fatigue about such a world view, we miss a stable, safe landscape these days. The ease to rely on in spite of the difference may be a luxury as the ideal that has not yet come but it may be faith. The meaning of faith may be the desire to live without having to make another world. The screen of Cho actualizes such beauty in an aesthetic sense. It not only explores ideally the world of beauty that is forgotten or replaced in our age but also captures the site of such dispute in photograph realistically.

^垰잔

박주원·······조현택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 석재마켓 -크로스 하이브리드 종교 유토피아

새로 이식된 근대 문화가 한국의 전통문화와 가장 크게 충돌했던 지점은 아마도 믿음의 구현, 즉 신의 형상화에 있었을 것이다. 생활의 모든 곳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던 한국의 토템 문화는 근대화라는 명목 아래, 어느새 철저히 배제되고 빠르게 사라져갔다. 조현택은 2018년부터 묘지에 쓰이는 석물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석재상을 주제로 전국 곳곳을 여행하며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작가는 때때로 마켓 진열대에서 팔려나갈 채비를 마친 석물들 앞에 합장하고 절을 하거나, 기원을 위한 간단한 음식들을 차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는 어느새 사라진 우리의 오랜 믿음과 신들을 다시금 마주하게 된다. 마켓에 전시된 석물 앞에서 누군가 합장을 하는 순간, 이 조각은 더이상 조경석이 아닌 기원의 대상이자 신의 형상이 된다. 어느새 하나의 상품에서 믿음의 대상으로 변모하는 석물들이 나란히 마켓으로 팔려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작가는 근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우리의 오랜 믿음은 과연 어떠한

Joowon Park ················ Hyuntaek Cho Curator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Stone Market — Cross Hybrid Utopia of Religion

Perhaps, one of the greatest clashing points between the newly implanted modern culture and the traditional Korean culture was the materialization of faith or the embodiment of the god. The totem culture of Korea, where people believed that gods dwell everywhere in their life, was strictly eliminated until it disappeared. Since 2018, Hyuntaek Cho has traveled throughout South Korea and taken panoramic photography under the theme of stone dealers where they sell stone figures placed before a tomb. While conducting the project, the artist saw people who bowed in front of the stone figures that were ready to be sold on the market shelves with their hands put together or prepared a table with food before a prayer. In those scenes, he could encounter the long-standing faith and gods of Korean people. When someone puts his or her hands together in front of a stone figure displayed in the market, the stone is no longer an ornament but the form of the god. Watching the stone figures — which are transformed from a product to an object of worship in no time — being sold in the market, the artist questions in what appearance

모습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된다. 이번 기획전에서 조현택은 사진 촬영 당시 압도적인 분위기를 현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 가로폭 5m의 고해상도 사진 프린트를 입체적으로 설치했다. 이 설치 안에서 작가는 사진 촬영 당시 느꼈던 직관적 감각들을 다시금 생생히 소환하고,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과 공포가 염원을 낳아 형성되는 신앙과, 그 믿음을 견고히 다지기 위한 도구로서의 석재 마켓, 샤머니즘을 토대로 한 한국적 종교관과 자본주의가 아주 기이한 형태로 공존하는 아이러니를 관찰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조건들 속에서 우리에게 경외감과 공포를 심어주는 믿음이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 신성함을 획득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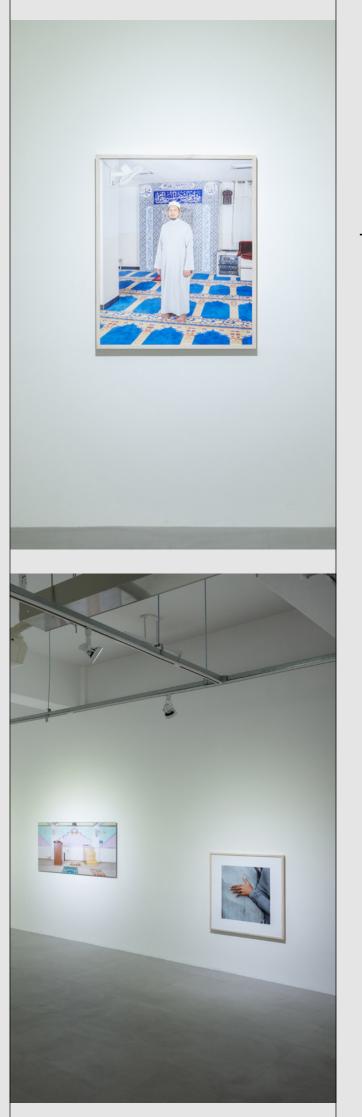
does our long-standing faith exist in the modern capitalist system. For this special exhibition, Cho installed high-resolution photo prints that are 5 meters wide three-dimensionally in order to express the overwhelming atmosphere of the filming site realistically. In his installation, he summons the intuitive sensations he felt during the shooting vividly and observes the faith that is formed by the wishes caused by human anxiety and fear, the stone market as the tool for solidifying the faith, and the irony in which the Korean religion based on shamanism and capitalism coexist in a bizarre form. Plus, he tries to show how the faith that implants in us the awe and fear is formed in such social conditions and how it earns the holiness.



박소영, '서북서 285°' 시리즈, 2020,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가변 설치 Soi Park, 'West-northwest 285°' Series, 2020, archival pigment print, dimensions variable

낯선 내부 장식, 문화, 언어가 국내 실정에 맞게 진화한 이슬람 사원을 기록한 사진이다. 무슬림은 성지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문화에 따라 한국으로부터 대략 서북서 285도를 향해 기도한다. 미디어를 통해 무슬림에 대한 일방적인 뉴스만을 접하는 동안, 이곳은 세계 각지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이들에게 장소를 초월하는 공간이 되었다.

A series of mosques where unfamiliar decorations, culture and language have evolved in South Korea. Muslims face towards Makkah where Westnorthwest 285° located from Korea and make the prayer. While the media exposes one-sided stories about Muslims, the place has become a transcendent space for those who migrated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i Park

은 원 원 이주연 •••••• 박소영 홍익대학교 강사

메카로 향하는 여정에 관한 사진으로 시작된 박소영의 프로젝트는 우리 일상의 소소한 부분들까지 변화시켜버린 팬데믹 상황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서북서 285°' 시리즈>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 (이슬림교도) 커뮤니티가 사용하는 모스크 (이슬람 사원)의 내부 공간을 주로 담고 있다. 애초에 박소영이 메카로의 여정을 사진에 담고자 한 것은 제주 예멘 난민 사태나 국내 무슬림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사회 문제들을 접하면서 구체화되었다. 그 여정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종교와 삶이 긴밀히 연결된 무슬림에게 이주와 국경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이방인의 위치에서 다루고자 한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서북서 2850' 시리즈>는 무슬림 문화가 극히 주변부에 머물고 있는 한국에서 무슬림 커뮤니티의 종교와 삶의 중심이 되는 모스크의 내부로 향한다.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한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모스크에서 촬영한 이 사진들은 '무슬림적인 것'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를 사진적으로 재현하기보다는 국내 실정에 맞게 진화한 모스크의 공간을 보여준다. 특별한 연출 없이 찍은 박소영의 사진에는 세심하게 보아야만 비로소 발견되는 것들이 있다. 모스크 창문 너머로

Juyeon Lee ······Soi Park Lecturer of Hongik University

The project of Soi Park, which was launched with photos about the journey to Mecca, was redirected in the situation of the pandemic that has caused changes throughout our daily life. Most photos of the 'Westnorthwest 285°' Series contain the indoor space of the mosques used by the Muslim community living in South Korea. At first, Park's idea of photographing the journey to Mecca took shape as Park learned about the issue of Yemeni refugees in Jeju and the social problems related to Muslim immigrants in South Korea. It is not clear what awaits at the end of the journey, but Park tries to deal with the meaning of immigration and border for Muslims—for whom religion and life are intertwined—from the position of strangers. In this sense, the 'Westnorthwest 285°' Series is directed toward the inside of the mosque, the center of life and religion of the Muslim community in South Korea where the Muslim culture is extremely marginalized. Instead of representing general images of "something Muslim," the photos shot in the mosques clustered around the industrial complex as the workplace of Muslim immigrant laborers show their inner space, which has evolved to suit the conditions in South Korea. In the photos that Park created without special effects, there

보이는 한국어 간판. 이국적인 아치형 구조, 다양한 색과 패턴의 벽지와 카펫, 아랍어 장식 사이로 보이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법한 벽시계나 선풍기. 연단에 부착된 표식에서 발견되는 안산이란 도시명의 영어표기. 이렇게 낯설게 섞여 있는 이질적인 것들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문화와 인식에서 결여되고 가려진 무슬림 커뮤니티의 이방인의 공간, 이주의 공간을 맞닥뜨리게 된다. 메카를 비롯하여 이슬람의 성지로의 순례는 무슬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 중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메카로 향하는 그들의 여정에서 한국행의 의미는 무엇일까? 경로의 이탈일까 아니면 잠시 멈춤일까? 그 여정은 계속되고 있기에 낯선 도시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공들여 마련한 모스크로 향하는 것이리라 '서북서 285°'는 한국에서 메카로 향하는 방향을 나타낸다. 국내 무슬림 커뮤니티에게 모스크는 한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멈출 수 없는 메카로의 여정을 이어가도록 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박소영의 사진 속 모스크는 메카로 향하는 끝나지 않은 여정의 공간이다.

are things you can finally discover when you take a closer look. The Korean signboard is seen through the window of the mosque. An exotic arch-shaped structure, the wallpaper and carpet in various colors and patterns, the familiar wall clock and fan that you can see among the decorations with the Arabic alphabet. The city is named "Ansan" on a mark on the podium. Upon discovering such things, which are mixed to produce an unfamiliar atmosphere, we are faced with the space of strangers, the space of immigrants, or the Muslim community that is neglected and veiled in our culture and from our perception. The pilgrimage to sacred places including Mecca is one of the duties imposed on Muslims. Then, what does their travel to South Korea mean in their journey to Mecca? Is it a deviation, or a brief halt? They seem to continue their journey by going to the mosques they built, maybe not perfectly but with great effort in the unfamiliar city. "West-northwest 285°" indicates the direction to Mecca from South Korea. For the Muslim community in South Korea, the mosque is the space that allows its members to continue their journey to Mecca even if they are living as strangers. Thus, the mosques in the photos of Park are the space for their continuous journey to Mecca.

촤재원

최재원••••••• 박소영 독립 큐레이터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에서 찍힌 서북서 285°'시리즈〉 사진에서 첫눈에 들어온 것은 몇 명 청년들이 모여 카메라를 들고 있는 한 사진가를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카메라 속 암실 트레이에 서서히 나타나는 사진의 상에는 찍는 자가 의도하고 바라봤던 그 모습이 아닌 의도하지 않은 순간이 명확히 떠오를 때가 있다. 스트리트 포토그래피의 '거리'는 그 현장일 수도 있지만, 사진가의 캐스팅은 암실의 라이트박스 위 네거티브를 들여다보는 루페(확대경) 속에서도, 그 사이에 있는 사진가의 무의식적인 꿈의 장소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 박소영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을 다룬다. 그 거리는 물리적일 수도 있지만, 관찰자에게 그 거리란 상대적이며 보려는 욕망으로의 장치-아웃풋을 통해 왜곡되기도 한다. 이미 분리된 것들은 쉽사리 다시 연결되지 않는다. 보려는 욕망과 그리워하는 것들의 착시는, 주어진 정보 이상의 것들을 붙잡으려 상상이 일으킨 환영에의 몰입을 가져오기도 한다. 박소영이 찍은 경기도 모스크 사원의 사진들은 서북서 285°를 향하도록 설계된 제의적 장소를 보여준다. 형체는 보이지 않고 배경만 있는 실루엣처럼 보이는 것은, 잡히지 않는 그리움에 대해 회복하려는 그런 노력의 제의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

Jaewon Chey ······Soi Park Independent Curator

When I looked at the photos of 'Westnorthwest 285°' Series that were taken in Bethlehem, Palestine, the first thing that grabbed my attention was a few young people who look uncomfortable around a photographer with a camera. Sometimes, you get to discover an unintended moment from an image on a photo that emerges slowly in the darkroom tray of the camera. The "street" of the street photography might be such a site; the casting of the photographer can be realized in a loupe through which he or she looks into the negative on the light box in the darkroom or at a place of his or her unconscious dream that is located in between. Soi Park deals with things from a far distance. The distance may be physical; but for the observer, the distance is relative and can be distorted by the device-output as a desire. The things that are parted once are not easily reconnected. The desire to see and the optical illusion about things that are missed may lead to a concentration on the phantom that is generated by the imagination in an effort to capture something more than the given information. Park's photos of the mosque in Gyeonggi-do show the place for ritual that is designed to face west-northwest 285°. What looks like a silhouette that contains not a form but a background may be the ritualistic

2013년 팔레스타인을 방문한 것은 2007년도 이스라엘에 있던 시간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지만, 사진가들이 의식의 한편에 부유하는 도트dot들을 연결해 가는 과정은 언어가 아닌 잔상의 부표들과 무의식의 신음들일 때도 많다. 부표들은 멀리 떨어져 전치된 가족사진일 수도 있고, 엘살바도르 출신의 한 노동자에게 받은 데킬라 석 잔을 마시는 장면으로 크로핑되다가 다른 이의 고향인 에콰도르를 가서 가족을 만나 <디어홈> 작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폴란드, 스웨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에콰도르, 브루클린, 부평 등에서 찍힌 사진의 영상은 지난 세기, 기술적 디바이스의 진화로 정주유목을 찬양했던 인류와는 반대로, 유목하면서도 정주하는 것들이 있다는 듯 잔상과 파편으로 분절되지만 연루되고 묻어져 나오거나 구분되거나 전이된다. 무슬림의 사원들이 서북서 285으로 향해 있는 동일성을 추구하지만, 각기 다른 피부색과 인종, 로컬의 단서들을 묻힌 채 제각각 다른 비동일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소영의 사진 속 부평, 수원, 안산, 파주, 안양, 포천의 모스크 사원의 설계는 무슬림들이 성지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문화에 따라 한국 서울 기준으로 서북서 285 방향의 메카를 가리키는 장소로서 연출된다. 한국 서울 기준으로 서북서 285는 메카를 가리키지만 일본 image to recover a longing that does not stay.

Although her visit to Palestine in 2013 is totally separate from her stay in Israel in 2007, the process of linking dots that are flowing in some corner of their consciousness by photographers frequently involves not the language but the buoys of afterimage and the moan of unconsciousness. The buoys may be the symbolic photos of a family living far away, cropping to the scene of drinking three cups of tequila received from a laborer from El Salvador, and works of *Dear Home* by meeting the family in Ecuador, someone else's home country. The images of the photos that were taken in Poland, Sweden, Israel, Palestine, Ecuador, Brooklyn, and Bupyeong are divided into afterimages and fragments but were involved and stained or distinguished or transferred as if there are things that are nomadic while being sedentary, unlike the human being who praised the sedentary nomad, thanks to the evolution of the technological device in the last century. This is why, while the mosques pursue the identity as all of them face westnorthwest 285°, they cannot help but show non-identity stained with different colors of skin, races, and local clues.

The mosques of Bupyeong,
Suwon, Ansan, Paju, Anyang, and
Pocheon in the photos of Park are
shown as the places that point to the
sacred Mecca, which is in the direction

도쿄에서는 서북서 293°로 이는 메카가 서울보다 위도가 낮지만 지구가 구형이기 때문에 북쪽으로 가는 편이 최단 거리로 더 짧아진 결과이다. 세계 각지로 이주한 무슬림들에게 장소를 초월하는 방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그 장소로부터 얼마나 멀리 동떨어져 있으며 왜곡될 수 있는가를 지시하고 있는 단서이기도 하다.

엄마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아빠에게 보내기 위한 가족사진을 찍는다.
사진의 수신자는 송신되는 가족사진에
부재하는 그 사람이다. 장롱에 있던 옷을
꺼내 아이들에게 입히고 머리 빗질을
마치면 엄마는 카메라를 들고 이제
아이들에게 벽 앞에 서 보라고 한다.
햇살에는 늘 그림자가 있다. 가족사진을
찍는 매개자는 그렇게 사진 속에 부재한다.
먼 곳의 아빠에게 보낼 사진은 그렇게
찍혀진다. 아이들이 찍혀지기 위해 그렇게
당신들은 부재한다. 그러나 당신들이 있어
사진은 남게 된다.

of west-northwest 285°, following the culture of Muslims who pray in the direction of Mecca. From the viewpoint of Seoul, South Korea, Mecca is located in west-northwest 285°; from Tokyo, Japan, however, it is located in westnorthwest 293°. Mecca is located in the lower latitude than Seoul; as the earth is shaped like a globe, it takes less time to reach there when you take the northern road. It not only shows that Mecca is the direction that transcends a certain place for Muslims who have immigrated to va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but also serves as a clue that indicates how far I am from it and how distorted I could be.

Mom takes the family picture for Dad who is living far away. The recipient of the picture is the person who is absent in the family picture that is being sent. After having their children dress in clothes from the closet and comb their hair, Mom takes the camera and tells them to stand in front of the wall. Every sunshine has a shadow. In this way, the mediator who takes the family picture is absent in it. The picture that will be sent to Dad is taken in such a manner. For children to be photographed, you become absent. But it is because of you that the picture will remain.





김영구, 사유하는 섬, 2020, 캔버스에 아크릴, 가변 설치

Younggu Kim, Thinking Islands, 2020, acrylic on canvas, dimensions variable

섬은 현대인의 삶과 매우 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지리적으로 실재하는 섬은 지정학적 경험을 주고, 도시의 안락함과 편리함과 대척점에 있으며, 단절과 고립의 경계에 있는 섬에 의해, 역설적으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연결과 개방성에 대해 사유하게 된다. 반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섬은 심미적인 대상으로서 인간 정신의 근원적인 정서를 형상화하게 되고 고립과 고독의 경계에서 시작되는 지극히 개인적인 정신사는 물론 공동의 인식체계와도 관련이 있다. 섬은 공간적 위치나 지정학적 경험을 통하여 인간 정서에 대해 되돌아보게 한다.

Islands is closely related to the lives of modern people. Islands that exist geographically create a geopolitical experience; they are at the opposite end of a citu's comfort and convenience. By islands that are at the border of severance and isolation, paradoxically, we can think about the connection and openness we have forgotten. On the other hand, an island that does not actually exist embodies the fundamental emotion of the human mind as an aesthetic object. A very personal mental history starting at the boundary of isolation and solitude is, of course, related to a recognition system of the collective. Islands allow us to reflect on human emotions through their spatial location or geopolitical experience.





Younggu Kim

다 왕 약 고충환••••• 김영구 미술평론가

도시_섬

데칼코마니는 마치 거울을 보듯 같으면서 다른 두 개의 형상을 얻을 수가 있다. 작가 김영구는 데칼코마니 기법을 전용해 자기만의 형식을 만들었다. 섬의 가장자리 선을 따라 합판으로 형태를 만든 연후에 그 위에 캔버스를 씌운 변형 캔버스에 그림을 그렸다. 그렇게 마치 거울을 보듯 한 쌍을 이룬 캔버스 위에 섬을, 그리고 또 다른 캔버스 위에 회색 도시를 그렸다. 그리고 캔버스 뒤에 지지대를 대고 세워 두 개의 섬이 서로 반영하면서 대비되게 했다. 섬과 '도시_섬'이다. 그렇게 작은 섬은 벽면에다 걸고, 상대적으로 큰 섬은 공간에다가 설치했다. 평면을 입체로, 회화를 설치회화로, 나아가 공간설치작업으로 확장해놓고 있는 경우로 보인다.

이처럼 설치된 정경이 마치 먼발치서 다도해를 내다보는 것 같고, 크고 작은 섬들이 떠 있는 바다를 조망하는 것도 같다. 심지어 섬들의 바닷속을 거닐어볼 수도 있다. 그렇게 거닐다 보면 그 실체가 손에 잡힐 듯 생생한 현실감과 함께, 아득하고 먼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기도 한다. 도시가 상실한 것, 그러므로 어쩌면 섬으로 대변되는 것, 이를테면 자연과 고향, 그러므로 어쩌면 아득한 원형을 Chunghwan Kho ······· Younggu Kim Art Critic

City-Island

Decalcomania produces two images that are the same but different as if we look into a mirror. Artist Younggu Kim appropriates the method of decalcomania to create his own form. He shaped chipboards into islands by cutting them out and covering them with canvas, on which he drew paintings. Kim drew islands on a group of canvases and gray cities on the other group of canvases that mirror the former ones. Then, he used the supports to make them stand, making two islands in a pair reflect and contrast each other. They are the islands and "City-Islands." Small islands were hung on the wall, and relatively large ones were installed in the space. It seems the artist has succeeded in expanding the two-dimensional to the three-dimensional, the painting to the installation art, and up to the performance of installation in the space.

Looking at the scene installed, it feels like looking out at an archipelago from a distance or viewing the sea with small and large islands. You can even take a walk inside the sea between the islands. While walking like that, you will be captured by two different feelings: the vivid sense of tangible reality and some distant, dim, unrealistic feeling.

상기시키고, 그렇게 도시가 섬(도시가 상실한 것)을 그리워하는 것도 같다. 섬처럼 고독한 도시를 떠올리게도 된다. 그렇게 도시(도시_섬)가 섬을 반영하고, 섬이 도시(도시_섬)를 되비친다. 작가의 그림은 그렇게 자연과 도시, 자연과 문명이 서로 대비되는 오래된 문법의 또 다른 버전으로 읽힌다. It reminds you of what the city has lost, or something that is represented as the island, for example, nature and hometown — in other words, the antetype; it feels as if the city misses the island (what the city has lost). You also come up with a city as solitary as an island. Like this, the city (City-Island) reflects the island, and the island mirrors the city (City-Island). The paintings of the artist are read as another version of the old grammar based on which nature and city, nature and civilization, are compared.

고립으로부터의 자유

정형화된 캔버스 회화에 천착해 왔던 작가 김영구는 이번 전시에서 새로운 방식의 회화적 설치를 감행한다. 유기적인 형상의 '변형 캔버스s '를 수고스러운 노동을 통해 제작하고, 그 위에 정밀한 재현 언어로 도시와 섬을 표현한 후 전시장에 가변적으로 설치하는 방식의 전시가 그것이다. 이차원 평면성이라는 회화의 매체적 한계를 극대화한 이러한 방식의 설치는 마치 무대 장치의 가설 회화처럼 공간 전체를 점유하면서 거대한 '공간 풍경'을 구축한다. 즉 이러한 방식의 회화 전시는 캔버스 프레임 내부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프레임 외부의 전시 공간마저 작품으로 끌어들이며 회화의 영역과 개념을 확장한다.

그가 이번에 다루고 있는 제재는 '섬'이다. 일차적으로 전시를 위한 이러한 소재와 제재는 경기창작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성에 대한 고려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가 오래전부터 천착해 왔던 도시 이미지에 대한 조형적 성찰 안에 자리한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그려왔던 '도시'는 빌딩 숲이 자리한 회색빛을 바탕으로 한 채 화려한 애드벌룬이 Sung-Ho Kim------ Younggu Kim Art Critic

Freedom from Isolation

Artist Younggu Kim, who has stuck to stereotypical canvas paintings, ventures into installing a new type of pictorial installation. He spares no labor in producing the "shaped canvases" with an organic form, expressing a city or an island using minute language for representation, and installing them dynamically in the exhibition hall. Such installation, which magnifies the limitation of the painting as a medium, the two-dimensional flatness, occupies the whole space as temporary paintings on a makeshift stage and constructs a massive "spatial landscape." In other words, such type of art exhibition expands the domain and concept of the painting as it includes not only the images in the canvas frames but also the exhibition space outside the frames as part of the artwork.

The topic that Kim deals with this time is the "island." At first, such topic seems to come from the considera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Gyeonggi Creation Center; ultimately, however, it is part of the formative reflection on the city image with which he has long been preoccupied.

This is not surprising because the "city" he has drawn was the "psychological image" or "imagery"

(54)

김성호

유영하고 있는 환상적인 이미지로 도시에 대한 '심적 이미지' 즉 '이미저리imigery'였기 때문이다. 흔히 심상心像으로 번역되는 '내적 형상'인 이미저리는 김영구의 작품 속에서 '외적 형상'인 회색빛 도시 이미지와 화려한 색상의 애드벌룬이 하나의 쌍을 이루면서 그 속에 숨겨진 '삶에 관한 메시지'를 관객에게 전한다. 외면적으로는 획일화된 차가운 도시이지만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도시민의 분주한 일상과 애환을 반대 이미지인 애드벌룬을 통해서 암암리에 가시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거주와 생업의 터전인 '도시'와 향유와 여흥의 상징으로서의 '애드벌룬'이 교차하는 낯선 만남은 그의 잔잔한 도시 풍경을 일정 부분 초현실주의적 양상으로 변주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전시에서 '섬'은 그간에 그가 천착해 온 도시 풍경과 쌍을 이루면서 등장했던 애드벌룬을 대신하는 이미저리인 셈이다. 이전 작품 속 애드벌룬이 환상과 낭만적인 색채로 삭막한 회색빛 도시 풍경을 여유로운 풍요의 공간으로 변모시켰다면, 이번 전시에서 새로운 언어로 등장하는 섬은 도시와 한 몸처럼 작동하는 쌍생아라고 할 것이다.

태생적으로 이질적인 양자가 상사성相似性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김영구의 전시 연출은 '인공의 도시'와 '자연의 섬'이 본질적으로 한 몸이었음을 일깨운다. 즉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of a city where fancy ad balloons are floating against the gray forest of skyscrapers. The imagery — which is often interpreted as a mental image or an "internal image" — in the works of Kim sends the "message about the life" hidden in the "external image," the pair of a gray city image and a group of colorful ad balloons. On the outside, the city may look cold and uniform; note, however, that the opposite image of ad balloons covertly visualizes the joys and sorrows in the busy life of the city residents. The strange meeting between the "city" as a venue where people live and work and the "ad balloons" as a symbol of enjoyment and leisure plays the variation of a city landscape in a surreal fashion.

In this sense, the "island" is an imagery that replaces the ad balloons paired with the city landscape in which he has been interested. If the ad balloons in his former works transformed the gray city landscape into a rich, leisurely space with fantasy and romantic colors, the island — his new language in this exhibition — can be said to be the twin functioning like one body with the city.

Kim's design of the exhibition, where the similarity between the innately different two things is revealed, makes us realize that an "artificial city" and a "natural island" belong to one body by nature. The "island made of buildings" and the "island made by nature" that is placed

마주 보게 설치한 '빌딩으로 만들어진 섬'과 '자연으로 만들어진 섬'은 도시의 콘크리트가 광물이라는 자연으로부터 온 것임을 피력하기에 부족하지 않다. 도시 속 여러 미디어는 또 어떠한가? 그 모든 것이 펄프, 빛, 전기장처럼 자연에서 발견되고 자연으로부터 온 것임을 상기하게 만든다.

전시명이자, 작품명인 〈사유하는 섬〉은 화가 김영구의 이번 전시에서 '섬'이라는 고립 지대를 '도시'라는 회색 지대와 교차하면서 둘 사이의 공유 지점을 구축한다. 섬은 육지로부터 고립되어 있지만, 바다로 이어지는 공간이며, 도시는 자연으로부터 별리되어 있지만, 인간과 이어지는 공간이지 않던가? 둘 사이에 있는 자연•인공과 같은 지정학적 대척점은 여타의 다른 공유 지대에 의해서 희석된다. 즉 '고립으로부터 자유'라는 가장 커다란 공유점으로 서로를 만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작가 김영구가 실험적으로 새롭게 모색한 이번 설치 작품인 '사유하는 섬'은 섬의 물리적, 지정학적 형식과 같은 '기표' 위에서 부유하는 것이라고 하기보다 섬을 '사유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철학적 메타포와 연동하는 '기의' 안에 내려앉는 '진중한 무엇'이라고 하겠다. to face each other like a decalcomania are enough to tell us that the concrete of the city comes from the nature of mineral. What about several media in the city as well? We recall that all of them have come from nature and got discovered in nature like pulp, light, and magnetic field.

In *Thinking Islands*, which is also the title of his works and this exhibition, Kim constructs the crossing point between the "island" as the isolated zone and the "city" — the gray zone — as he juxtaposes the two. The island is isolated from the land but linked with the sea, and the city is separated from nature but linked with human, aren't they? The geopolitical antipode between the two, such as natural/artificial, gets diluted by other zones they share in common. Namely, "Freedom from Isolation" is the greatest similarity that lets them meet.

Thus, Thinking Islands, the new experimental installation created by Kim, is "something solemn" that settles itself in the "signified" that is interlocked with the philosophical metaphor that sees the island as the "thinking being" rather than something floating on the "signifier," such as the physical and geopolitical form of the island.





조선경 & 박관택, L'incontro, 2020, 가변 설치, 퍼포먼스 ^{협력프로젝트} Sunkyung Cho & Kwantaeck Park, L'incontro, 2020, dimensions variable, performance collaborative project

가가노트

몸을 매개로 안무 작업을 해 온 조선경과, 관객의 여러 감각을 활성화하는 공간을 디자인해 온 박관택의 협업은 무용과 미술이라는 두 장르가 지닌 공통 요소, '신체'와 '공간'이라는 두 가지 접점에서 출발한다. 두 사람은 각자의 창작과정에서 '자의성'의 개입과 배제라는 유사한 고민을 발견하여, 본 협업과정을 통해 몸을 이용한 주체적 움직임의 구조와 그러한 움직임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물리적 조건과의 관계를 실험하고자 한다. 경기창작센터 기획전에서 선보일 작업 〈L'incontro〉는 그 첫 번째 만남으로써, 스코어 (의 개념을 활용하여, 몸짓 언어와 시각 언어 사이의 소통을 시도한다.

It is a collaborative piece by Sunkyung Cho, who has been working on choreography that uses the body as a medium and Kwantaeck Park, who has been designing spaces that activate various senses of people. The collaboration starts from 'body' and 'space,' the two points of contact shared by the two genres of dance and art. In their creative process, the two found similar concerns—the intervention and exclusion of 'arbitrariness.' Through this collaborative process, the two tried to experi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ucture of the autonomous movement using the body and the physical conditions under which such movement appears inevitably. Their work L'incontro, which will be presented





as a special exhibition at the Gyeonggi Creation Center, is the first of the series. It attempts to communicate via gesture and visual language using the concept of score.





다 요 스 김영신 ••••• 조선경 작가

관객의 시선

공연들은 대개 조명 아래에서 진행되며 조명 밖은 어둠의 공간으로 아무런 행위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작품 〈L'incontro〉에서 무용수는 밝은 곳, 어두운 곳,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곳들을 표류하듯 움직인다. 조명이 깜빡이는 곳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조명이 켜졌을 때는 무용수의 움직임을 뚜렷하게 볼 수 있지만, 조명이 꺼졌을 때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추측할 뿐 잘 보이지 않는다. 즉 빛 안의 것들은 뚜렷하지만, 빛의 밖인 어둠 속에선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때로는 정말 존재하는지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작품을 보며 프랑스어 관용구 "개와 늑대의 시간 heure entre chien et loup"이 떠올랐다. 낮과 밤의 경계인 해 질 녘에는 저 멀리 보이는 것이 개인지 늑대인지 분간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그 어스름한 시간에는 모든 것이 뚜렷하지 않아 판별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어둠 속에는 분명 개나 늑대 중 하나가 존재한다.

나는 〈L'incontro〉에서 빛과 어둠 속을 넘나드는 무용수의 움직임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Youngshin Kim ······ Sunkyung Cho Artist

The Gaze of the Audience

Most performances are performed under lighting, and it is assumed that nothing happens outside the lighted space. Nonetheless, the dancer of L'incontro moves, or floats, through bright, dark, and neither bright nor dark areas. The areas on which the lighting flickers are the space where light and darkness coexist. When the lighting is on, you can see the movement of the dancer vividly; but when it is off, you won't see well, guessing only that the movement continues. In other words, the things in the light are obvious; but in the darkness outside the light, everything is uncertain and cannot be concluded and sometimes questionable if it even exists.

While watching the show, the French idiom, "the time between dog and wolf (L'heure entre chien et loup)" popped up in my mind. It means that during sunset, the border between day and night, you can't be certain if the thing over there is a dog or a wolf. The dusk makes everything unclear and hinders us from discerning them. Still, it doesn't mean that there is nothing even if you can't see well. In the darkness, either a dog or a wolf exists.

I felt that the movement of the dancer in *L'incontro* crossing the light and the darkness can be interpreted

(60)

느꼈다. 사람들은 본인이 보고 느낀 대로 타인을 판단한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빛' 안에 존재하는 요소들만을 보고 상대를 판단한 것이며, 그 요소들은 상대의 일부일 뿐이다. 상대는 다른 상황, 다른 장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내게 있어 상대방의 '어둠', 빛 밖의 세계인 것이다.

as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People judge others as they see and feel. But when I judge others based only on the things in the "light," the things are only part of them. They can exist differently in other situations, other places, and other relationships with other people, and that is the "darkness" about them for me, the world outside of light.

와 명 건 어둑한 그곳, 빛이 닿지 않는 그곳은 흔히 존재의 전제 조건으로 남아 있다. 가령, 무대 바깥으로 밀려난 영역이라고 여겨지지만 실은 그것 없이 무대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드러난 것이 지닌 드러나지 않은 뼈대와 같은 그 무엇이랄까. 그러한 차원을 더듬어가며 은폐된 잔여를 '탈은폐'하고자 하는 안무가 조선경의 작업은 존재의 바깥을 통해 존재를 질문한다. 이미 거기에 있었지만 의식하지 못했던 영역이 비로소 지각되고 새롭게 깨어나 다가온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는 그곳은 어떤 역전의 지대이며, 협업 작가인 박관택이 작업한 사물이 퍼포머가 되는 공간에서 조명이 밝히는 영역을 우선 차지하는 것은 신체가 아니라, 안무가 윌리엄 포사이스가 말했듯이, '행위를 유발하는 지각적 현상의 잠재 상태를 나타내는' 스코어가 적힌 종이들이다. 이는 공백으로 남겨진 탈주체의 전시이자 퍼포먼스를 상정한다는 것이며, 조선경의 안무적 선택은 통상적인 공연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위상에 괄호를 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공연의 공간 또한 뒤바꿔놓고 있다. 그리하여 행위의 발생은 조명의 영역에서 밀려나 더욱더 어둑하고 미심쩍은 깊이 안으로 달아나는 양상이다. 안무 스코어를 실행하는 조선경의 신체는

어둑한 그곳에 머물며, 또한 그곳으로부터

Myeongjin Heo ······ Sunkyung Cho Dance Critic

The dark place, the place where light doesn't approach, is often regarded as the precondition of the existence. It is like an unexposed skeleton that the exposed has, something that is considered to be the area outside the stage while the stage itself cannot exist without it. The work of Sunkyung Cho that tries to "deconceal" the concealed residue while groping such dimension asks questions about the existence by the medium of the outside of the existence. The domain that has already existed but which we weren't conscious of becomes perceived only then and awakens us with new light. The place where such state occurs is a certain zone of reversal; in the space where the objects installed by co-artist Kwantaeck Park become the performers, what occupies the area highlighted by the light first is not the body but, as William Forsythe says, the papers with the score that "represents the potential of perceptual phenomena to instigate action." This means presuming an exhibition and the performance of desubjectivation that is left as a void, and the choreographic choice of Cho puts the status of human in general performances in parenthesis and poses a question, altering the space of the performance. Therefore, the occurrence of action expelled from the light runs away into

더욱 멀고 가늠하기 어려운 지대로 확장되는 듯하다. 어둠의 연장과도 같은 그 드러나지 않는 행위를 통해, 이면의 은폐된 것이란 촉감적 혹은 운동감각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의 신체는 자꾸 사물 뒤로 숨거나 지평을 바꾸어버리며 바닥의 존재까지 다르게 돋구어내는가 하면, 심지어 전시장 경계 바깥으로 사라져버리기도 한다. 말하자면, 이는 탈자적 접근을 통한 존재론적 물음이기도 하면서 사건과 공간, 초점과 의미, 기준과 경계에 대한 의문 등을 포괄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또한 이처럼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행위하기 혹은 숨어버리기를 전면화하고, 이탈적이고 잔여적인 공간을 무대화하는 것은 제도나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어둠과 숨기, 벗어남의 차원은 이처럼 다면적인 질문들을 포함하면서 영감과 확장을 허용한다.

a darker, suspicious depth. Cho's body, which practices the choreographic score, stays there in the dark, and it seems to be extended to a zone that is still farther and hard to picture. Through the veiled action that is like an extension of darkness, we get to realize that the concealed on the other side only exists in tactile or kinesthetic sense. Otherwise, her body repeats hiding behind objects and changes the horizon to highlight the existence of the floor differently and even disappear beyond the border of the exhibition hall. So to speak, it is not only an existential question through an ecstatic approach but also comprehends the questions about accident and space, focus and meaning, and boundary and standard. Foregrounding the action in a concealed place or hiding and staging the deserted and residual space is also problem posed on the institution and custom. The dimension of dark, hiding, and breaking away includes such multifaceted questions, and it is open to inspiration and expansion.

강민지

강민지······ 박관틱 경기도미술관 학예연구사

박관택 작가와 조선경 안무가는 이번 협업을 통하여 움직임과 설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학적 관계에 대해 실험한다. 출품작 〈L'incontro〉는 각각 시각예술과 공연예술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이들이 서로의 작업에서 주요 쟁점으로 삼은 '신체'와 '공간'의 요소에 착안하여 시작되었다. 먼저 조선경이 움직임을 위한 스코어 30000를 제작하고, 박관택이 이 스코어를 실행할 수 있는 공간을 디자인하며, 실제로 구축된 구조속에서 조선경이 반응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소통하였다.

박관택이 이제까지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감각하는 여러 가능성을 제안해왔다면, 몸을 매개로 작업해온 조선경과의 콜라보는 신체의 움직임과 물리적 구조에 관한 그의 실험을 구체화하고 있다. 전시공간은 종이와 비닐, 실타래, 에어펌프, 스튜디오 조명 등 익숙한 재료를 이용한 오브제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각자 공기, 빛, 소리, 진동을 원동력으로 매달리거나 팽창하거나 깜빡이는 등 파편화된 움직임을 반복하며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상태로 공간 속 불안한 균형을 이어간다. 이러한 공간을 신체로 지각하는 경험을 선보인 조선경은 그간 안무 디자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Minji Kang ······· Kwantaeck Park Curator of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rtist Kwantaeck Park and dancer Sunkyung Cho experiment on the dynamic relationship that can be produced between the movement and the installation. Their work L'incontro was initiated based on the "body" and "space," the factors on which the two of them, who have continued to work in the fields of visual art and performance art, respectively, have focused for their works. First, Cho made the score for her movement, and Park designed the space to practice the score; in the finally constructed structure, Cho showed a responsive performance for communication.

If Park has suggested several possibilities to sense the image using various elements, the collaboration with Cho, who has worked with her body as the medium, concretizes his experiment on the movement of the body and the physical structure. The exhibition space consists of objects using familiar materials, such as paper, plastic, skein of thread, air pump, and studio lamp. Each of them repeats fragmented movements, such as hanging, expanding, and flickering, with the driving forces of air, light, sound, and vibration; they keep the unstable balance in the space in changeable and fluid state. Cho, who shows an

외부의 물리적 조건을 수용하며 작업 영역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끊임없이 상태가 변화하는 오브제들이 조선경 안무가가 떠난 텅 빈 전시실 속에 비가시적인 움직임을 형상화한다. experience of perceiving such space with her body, tries to expand the work domain as she accepts the physical conditions of the outside that have not been an essential consideration in choreographic design. The objects with incessantly changing states embody the invisible movement in the empty exhibition hall that is left behind by dancer Sunkyung Cho.

오세원 ······ 박관택 씨알콜렉티브 디렉터

의미 있는 일상의 만남을 찾아

콜라보레이션 〈L'incontro〉은 무용과연대미술 분야의 두 예술가, 안무가조선경과 작가 박관택 특유의 움직임, 그리고 시각을 중심으로 다양한 감각들이만나 생성되는 텍스트를 살펴보기 위한실험적 퍼포먼스이다. 두 예술가의 첫번째 만남은 박관택 작가가 주로 활용하는비물질적 오브제들의 아날로그적이고반복적인 움직임과, 이를 관찰하면서반응하는 조선경의 춤이만난일종의"데이트"현장이다. 안무가에게 춤은 세상과관계 맺고, 발견하는 소통의 매개체인건과 같이, 작가에게 공간설치작업은감각 언어를 생성하고 이 사회적 의미를관람자와 공명하기 위한 것이다.

어두운 공간에, 무대의 기본인 조명이 켜있고, 휴먼스케일의 검은 비닐봉지 벌룬이 섰다 누웠다를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고정된 추와 움직이는 밧줄, 종이쪽지가 들어 있는 작은 종이박스가 놓여있다. 일상적이고 두드러지지 않아 주목성이 낮은 이런 오브제들은 안무가의 퍼포먼스가 수행되는 공간 속에서 상호작용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감, 존재감만을 드러낸다. 이는 안무가의 몸짓이 드러낼 사건 및 언어와 소통하기

Sewon Oh Kwantaeck Park Director of CR Collective

In search of Meaningful Encounter in Daily Life

L'incontro, the collaboration between dancer Sunkyung Cho and artist Kwantaeck Park— two artists in choreography and in contemporary art — is an experimental performance to look into the text that is generated as their unique movements and various senses centering on sight. The first encounter between the two artists is a kind of "date" wherein the meeting between analog and repetitive movements of non-material objects often used by Park and the dance of Cho that observes and responds to them occurs. As dance is a medium of communication related to the world and which makes discoveries for a dancer, an installation for an artist is to produce the language of sense and resonate it to share it with the audience.

In a dark space, there is a light on as the basic ingredient of the stage, and a human-scale black plastic balloon is repeatedly standing and falling mechanically. And placed there are a fixed weight, a moving rope, and a small paper box with pieces of paper inside. The objects that are not remarkable because they are ordinary and indistinctive show minimum matterness or existence in the space where the

위한 배려의 시각언어로서 자기인식, 자기비판적인 매체성이나 내러티브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또한 미술이 일상성을 담보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가 주목하는 예술적 차이가 단순히 물질적 감각의 확장만이 아닌 비물질적 가치나 의미에 닿아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의미는 사실 조선경의 퍼포먼스에서도 발견된다. 조선경의 몸짓은 삶과 구분되고, 특별한 것으로서의 춤 예술이라기보다 주변 세상과 조우하고 소통하며 공명하는 일종의 몸짓으로서 탐색 되어 왔다. 또한 그녀가 형이상학적 내용을 표현하고, 어떠한 사건을 재현하며, 새로운 안무형식이나 과장된 포즈의 특별한 움직임을 창조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기보다 가장 일상의 의미 있는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하는 - 행위들과 닮아있다. 이는 삶에 대한 깊은 사유와 통찰을 보여주며, 관람자에게 공감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억제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일상의 만남과 소통의 소중함을 확인하게 하는 협업이다.

performance of the dancer takes place. The prudent visual language to communicate with the accident and language that will be revealed from the gestures of the dancer seems to be meant to minimize self-understanding or self-critic effect of a media or a narrative. Additionally, it affirms that art is based on the ordinary and shows that the artistic value on which the artist is focusing is not only the expansion of the physical sense but also non-material value and meaning.

You can discover this meaning in the performance of Cho as well. Cho has explored the gesture not as something that is distinguished from our life, some special art of dance, but as a movement that encounters and communicates and reverberates with the world beside us. Instead of focusing on expressing a metaphysical content, representing an accident, or creating a new form of choreography or a special movement with exaggerated gestures, she imitates meaningful, usually unacknowledged actions in our ordinary life. This shows deep thinking and reflection on life and delivers a sympathetic message to the audience. While we are refraining from direct human contact due to the global pandemic, the collaboration reaffirms the value of ordinary meetings and communications.

김수나

김수나는 공간과 사건의 관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으며, 석고나 천, 종이, 스프레이 등 비정형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오브제 및 설치작업을 하고 있다.

2005년 한국에서 회화를 전공했으며 2014년 뮌스터 쿤스트 아카데미에서 설치미술을 공부한 뒤, 2019년까지 독일에서 활동하였다.

김영구

김영구는 주로 아크릴을 사용한 평면회화
작업을 한다. 섬세하고 치밀한 제작
과정으로 무채색의 도시와 빌딩을 배경으로
전면에 배치한 이미지들로 만들어낸
도시라는 공간과 구조적 공동체 안에서
개인이 겪을 수 있는 경험이나 감정보다,
주로 개인의 역할이 공동의 경험으로
나타나는 문화적 현상에 주목하여 왔다.

〈보이는 도시, 보는 도시〉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7관, 서울, 2019)를 포함하여 다수의 개인전과 기획전에 참여하였으며, 최근에는 〈사유하는 섬〉이라는 평면과 설치작업을 통해, 실제와 관념적 섬이라는 주제로 단절과 고립의 경계에 있는 섬에 의해 역설적으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연결과 개방성에 대해 사유하게 되는, 물리적 거리와 공간에 대한 인식체계에 관한 시리즈를 구상 중이다.

Suna Kim

Suna Kim is interes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pace and phenomena occurring in that space, and works on objects and installations using various materials such as plaster, cloth, paper, and spray.

She majored in painting in Korea in 2005, and after majoring in installation at Kunstakademie Münster in 2014. She worked in Germany until 2019.

Younggu Kim

Younggu Kim mainly works on flat surface paintings using acrylic. In the structural community and space called city created with images placed in front of the achromatic city and buildings through a delicate, detailed production process, the artist has paid attention to the cultural phenomena where in the role of individual is expressed through an experience of the common, rather than the experiences and emotions that may be felt by individuals.

The artist participated in a number of solo exhibitions and special exhibitions, including "City Seen, City Seeing" (Hangaram Art Museum Gallery 7, Seoul Arts Center, Seoul, Korea) in 2019. In recent years, through the flat surface and installation work titled *Thinking Islands*, the artist has been working on a series on the recognition system of physical distance and space, which paradoxically uses island at the boundary between

민혜기

민혜기는 누구나 겪는 것 혹은 흔한 것이지만, 말이나 글로 잘 표현할 수 없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일상을 면밀하게 관찰하여 포착한 순간을 디지털 기술과 기계 장치를 통해 새로운 조형적 언어로 표현하며 새로운 상상을 유도한다. 개인전으로는 〈벡터의 합은 〇〉(스페이스나인, 서울, 2019)이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고양, 2019), 금호창작스튜디오(이천, 2017-2018) 등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09년 Ars Electronica 30주년 작품 공모 작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박관택

박관택은 동시대 현상을 관객의 신체 경험으로 치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비가시적이지만 포착 가능한 인과성을 지닌 사회 현상들과 이를 둘러싼 정돈되지 않은 심리와 태도에 관심이 있다. 오감의 일부를 통제하거나, 확장을 유도하는 조형 언어를 활용하여, 특정 이슈에 무관심한 이에게도 유효할 수 있는 경험적 구조를 생성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다. 주요 참여 전시로는 《Story of a Story》(스맥 멜론, 뉴욕, 2015), 〈깜박일수록 선명한〉(두산 갤러리 뉴욕, 뉴욕, 2018), 〈다다 팩토리〉(성북 어린이미술관 꿈자람, 서울, 2019), 《Creativity and Daydream〉(에르미타주 미술관, 상트페테르부르크, 2020) 등의 disconnection and isolation under the theme of real and ideal island to make us think about connection and openness that we have forgotten about.

Hyeki Min

Hyeki Min interests in things that everyone experiences or is common, but cannot be well expressed in words or writings. She represents new plastic language with digital technology and machanic materials the moments that she observes and captures. And she leads the viewers into a new imagination. She held a solo exhibition "The Sum of Vectors is Zero" (Space9, Seoul, Korea) in 2019 and participated in the artist-in-residence programs at MMCA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Residency Goyang (2019) and Kumho Art Studio (2017-2018). In 2009, she was selected as a juried artist in Ars Electronica for its 30th Anniversary.

Kwantaeck Park

Kwantaeck Park brings contemporary phenomena into the audience's physical experiences. Park is interested in the social phenomena with causality that are invisible but detectable, and the unsettled minds and attitudes regarding them. Experiments are underway to create experiential structures that can be effective even for those who are indifferent about the issue, by using formative language that limits the five senses or induces

그룹전과 개인전, <여백 Spinoff From The Facts>(인사미술공간, 서울, 2019), <버퍼링>(소마미술관, 서울, 2019) 등이 있다. 킴멜 하딩 넬슨 센터(KHN, 네브레스카), 약도(Yaddo, 뉴욕), 국립현대미술관고양레지던시 등의 작가 레지던시에 참여했다.

박소영

박소영은 사진을 매체로 국제 난민 및 노동 이민에 대해 다큐멘터리 스타일을 차용하여,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내러티브를 만들어 간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아이슬링 갤러리, 미국, 2010)을 시작으로 〈Home WARD〉(네이든커밍스재단, 뉴욕, 2016), 〈Engagin Artists〉(퀸즈뮤지엄, 뉴욕, 2016), 〈14회 동강사진축제〉(동강사진박물관, 강원, 2015),〈Dear Home〉(큐예술재단, 뉴욕, 2013) 등의 개인전 및 그룹전을 가졌으며, 모어예술재단의 아티스트 레지던시에 참여하였다. 2011년 앨리스킴볼 트래블링 펠로우쉽 및 2016 알재단의 Woolhee Choe 기념상에 선정되었다.

정현두

정현두는 풍경과 풍경에 대한 심상, 작업을 통해 생겨나는 감각, 신체의 궤적, 언어 등 다양한 감각을 회화로 표현한다. 그의 작업은 대부분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로 남겨지는데, 이는 작업을 진행하는 expansion. Park has participated in numbers of exhibitions, group exhibitions include "Story of a Story" (Smack Mellon, New York, USA) in 2015, "Tenacious Afterimage" (Doosan Gallery New York, New York, USA) in 2018, "Dada Factory" (Seongbuk Children's Art Museum Dream Jaram, Seoul, Korea) in 2019, "Creativity and Daydream" (State Hermitage Museum, Saint Peterburg, Russia) in 2020, and solo exhibitions "Yeobaek: Spinoff From The Facts" (Insa Art Space, Seoul, Korea) in 2019, "Buffering" (Soma Museum, Seoul, Korea) in 2019. He also has participated in artist-in-residence programs at Kimmel Harding Nelson Center, Yaddo, and MMCA Residency Goyang.

Soi Park

Soi Park approaches documentary photography in a personal narrative. Her subjects on labor migration, blurred borders and global economics are explicit yet mysterious.

Park's exhibitions have been exhibited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Her most recent shows included the Nathan Cummings Foundation, Queens Museum of Art and Donggang Photography Museum. She held residencies with More Art Foundation in New York. Soi Park received AHL Foundation's Wolhee Choe Memorial Award and Alice Kimball Travelling Fellowship.

과정 중에 하나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바라보는 태도와 관련한다. 최근 그는 기존의 연작보다 느슨한 방식으로 여러 화면을 이해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개인전 〈얼굴을 던지는 사람들〉(윌링앤 딜링, 서울, 2019), 〈밤과 낮의 대화〉(위켄드, 서울, 2018), 〈무지개를 쓴 사나이〉(공간형, 서울, 2017) 등과 단체전 〈당신의 삶은 추상적이다〉 (아트스페이스3, 서울, 2019), 〈Lobby Mubby Carpet〉(2/W, 서울, 2018) 등에 참여했다.

조선경

조선경은 한국무용을 처음으로 춤을 접하고, 현재는 그 구분, 안과 밖을 경계 지으려 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안무 작업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이탈리아 로마와 독일 에센에서 춤과 안무 공부를 계속하였으며, 이때 로마에서 만난 5명의 퍼포머들과 댄스시어터 리서치 그룹 Caravan을 창단하고 첫 안무를 시작하였다.

2019년부터는 기존에 규정된 상황에서 벗어나 솔로 작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인간의 신체성에 대한 관심과 감각을 통한 새로운 세계로의 열린 가능성을 작업 안에서 구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계속해서 걷는 것을 즐기며, 걸으며 맞닥뜨리는 빈 공간과 그곳에서 마주하는 무언의 기호의 제스처와 표현에

Hyundoo Jung

Hyundoo Jung expresses various sensations such as scenery and images of it and senses created through work, body trajectory, and language by painting. Most of his works are left in a state where the meaning cannot be determined, which is related to the attitude of looking a image in various ways during the process of his work. Recently, he is interested in understanding various screens in a looser way than the existing series.

Solo Exhibitions "The Face Throwers" (Space Willing N Dealing, Seoul, Korea) in 2019, "A Paradoxical Talk" (Weekend, Seoul, Korea) in 2018, "The Guy Wears Rainbow" (Space Hyeong, Seoul, Korea) in 2017 and group exhibitions participated in "Your Life is Abstraction" (Artspace3, Seoul, Korea) in 2019, and "Lobby Mubby Carpet" (2/W, Seoul, Korea) in 2018.

Sunkyung Cho

Sunkyung Cho studied Korean traditional dance and trying to dissolve borders and definitions in her works. After graduating from university in Korea she continued to study dance and choreography in Rome, Italy and in Essen, Germany.

Alongside her studies, she has worked as dancer and choreographer. She created her first choreographies No(t)I for the group of theatre research Caravan that she founded in Rome with other five performers.

귀 기울이는 시간은 작가 본인의 작업의 시작점이 되며, 그 안에서 만나는 혼돈은 작업을 위한 필요로 받아들인다.

조현택

조현택은 사진작업을 통해 한국 사회의 변화하는 환경을 포착한다. 그는 현대 사회의 시스템을 연구하는데 특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소비하는지에 집중한다. 조현택은 카메라 옵스큐라와 같은 사진 기법을 활용하여 실험적이지만 감각적인 작업을 진행한다. 그는 현대 한국 사회의 빠른 변화와 달라진 삶의 방식, 그리고 재개발되는 오래된 도심의 버려진 집들을 사진으로 남긴다. 그는 동신대와 조선대에서 사진과 미학을 공부했으며, 그의 작업은 광주, 서울, 베이징 등 다양한 도시에서 전시됐다. 그는 광주에서 살면서 작업하고 있다. From 2019, she has been working on solo outside of the already defined situation, and she continues to find the possibility of opening to a new world through her interest in human physicallity and senses.

She loves walking continuously and to listen to the empty space encountered while walking and the time listening to the gestures and expressions of the unspoken symbols which come acrossed, there serves as the starting points for her work.

The chaos encountered therein is accepted as a necessity for her all creative process.

Hyuntaek Cho

Huuntaek Cho uses photography to capture changing atmospheres of South Korea. He researches on the systems of modern society, especially focusing on how people live and consume. From camera obscura to panorama, Hyuntaek Cho explores various techniques of photography for experimental yet sensible works. He has depicted rapid transformation of way of living in modern Korea through abandoned houses and redeveloped sites in old cities. He has studied photography and aesthetics in Dongshin and Chosun University. His works were introduced in various exhibitions cities such as Gwangju, Seoul, and Beijing. He lives and works in Gwangju.

2020 경기창작센터 창작레지던시 기획전 《0인칭 시점》

온라인 공개 2020. 10. 22부터 경기창작센터 홈페이지 gcc.ggcf.kr

▶ ◎ ♠ 경기창작센터

김수나 김영 민한 박소영 지 한 학 보 한 전 전 연택 조 연택

주최	경기문화재단
주관••••••	경기창작센터

워크스
····· 무진동사
••• 디유크리에이티브
······ 정정호

(재)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101-19 032.890.4800 2020 Gyeonggi Creation Center Special Exhibition *O-Person Perspective*

View Online from Oct. 22. Gyeonggi Creation Center Website gcc.ggcf.kr

► ② Gyeonggi Creation Center

Suna Kim
Younggu Kim
Hyeki Min
Kwantaeck Park
Soi Park
Hyundoo Jung
Sunkyung Cho
Hyuntaek Cho

Hosted by •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Organized by • Gyeonggi Creation Center

Director ----- Hongmi Ju
Team Manager ----- Moonkook Chon
Curator ----- Choah Bang
Assistant ----- Yeonjoo Oh
Support --- Taeyong Kim, Inho Pak, Sunkyu
Lee, Dohye Park, Yoojin Jeon

Graphic Design ------ WORKS
Space Design ------ Mujindongsa
Video Production DUCreative
Photography ----- Jungho Jung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Gyeonggi Creation Center 101-19 Seongam-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Korea +82.32.890.4800 본 자료집에 실린 글과 사진은 경기창작센터의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할 수 없습니다. No part of this may be reproduced or utilized without written permission of the Gyeonggi Creation Center and artists(auth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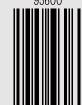


GYEONGGI CREATION CENTER ᠍ 경기창작센터

발행처경기문화재단
발행인 강헌
총괄 주홍미
웹 자료 기획, 편집 ••••• 방초아
웹자료 편집 지원 •••••박도혜, 오연주
웹자료 디자인, 제작 ••••• 워크스
발행일 2020.12.22.

Publication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PublisherHun Kang
Editor ····· Hongmi Ju
Web Catalog Planning ······Choah Bang Web Catalog Editing Support ······
Dohye Park, Yeonjoo Oh Web Catalog Design and Production ····
WORKS
Date of Publishing Dec. 22, 2020





ISBN 978-89-999-0195-9 비매품/무료

(PDF)

